사회주의
우리 집

평 양 출 판 사
주체108(2019)년

조선은 무엇으로 강해지는가

(머리말을 대신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으로 부강해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위상이 세인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있다.

힘에 의한 강권과 전횡, 주권침해행위가 란무하는 21세기의 복잡다단한 정치풍파와 온갖 역경을 끗끗이 이겨내며 사회주의조선은 새시대와 더불어 불과 몇년사이에 자기의 힘을 백배, 천배로 키워 마침내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라섰다.

이 극적인 변화와 비약에 당황한 세력들은 강도적인 제재고삐를 내흔들며 어떻게 하나 조선이 강해지는것을 막아보려고 기승을 부리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따위에 흔들릴 조선이 아니다.

고난이 두려워 굴복할 조선인민이 아니다.

이제 더 큰 시련과 난관이 닥쳐온대도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세계가 보란듯이 반드시 실현하려는것은 주체조선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은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은 다시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해갈 배짱과 용기를 가다듬고 용약 떨쳐일어나섰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자립, 자력의 열풍이 거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전민이 떨쳐나선 자력갱생대진군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온 강산을 진감하는 속에 생산정상화의 동음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언제들이 솟구쳐오르고 굴지의 야금기지들에서는 주체철폭포가 장쾌하게 쏟아지고있다. 대건설의 교향곡이 강산을 진감하는 속에 삼지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애국의 후더운 마음들이 가꾸어가는 황금벌, 황금해, 황금산마다에 펼쳐지는 흐뭇한 결실들은 풍요한 래일을 부르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경공업기지들마다에서는 현대화, 주체화의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쳐 인민들의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의 령역은 나날이 넓어지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만복의 주제가로 더 높이 울리고있다.

찬바람, 눈속에서도 그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 같이 진함과 변색을 모르고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오직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을 세계가 놀라움과 그에 못지 않은 의문을 품고 주시하고있다.

과연 무엇으로 하여 조선은 날로 강해지는것인가.

풀 길 없는 의문을 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시선을 돌리고있으며 또 저저마다 평양길에 오르고있다.

눈과 페부로 보고 느끼는 이 땅의 현실앞에서,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에 누구라 없이 또다시 놀란다.

비록 겉보기에는 눈길을 유혹하는 번화함과 번쩍거림은 없어도 그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우리 국가가

제일이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자부와 기백이 가는 곳마다에 약동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삶의 희열과 열정, 열렬한 사랑에 충만되여있다.

그 약동의 패기와 열정의 분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것인가.

사회주의 우리 집!

이 정다운 부름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주의 우리 집, 그것은 인민을 제일로 여기고 인민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그 품에서 인민은 누구나 나라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성실하게 살아나가고있다. 사람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의 집,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의 참세상이다.

보살펴주는 손길은 매 사람들과 매 가정을 한시도 떠난적 없고 힘든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고마운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여 언제나 한점의 그늘도 깃들지 않

는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우리 집이다.

베풀어지는 시책이나 누리는 혜택의 크기만이 전부가 아니다.

알고 받는것보다 모르고 향유하는것이 더 많고 먹고 입고 쓰는것에 비교조차 할수 없는 자기 운명과 존엄, 생의 보람을 지켜주는 한없이 소중한 품이기에 인민은 그 품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무한히 아끼고 사랑한다.

자본주의에서는 꿈도 꿀수 없고 흉내조차 낼수 없는 놀라운 힘, 사회주의의 높은 정신력과 단결력, 발전과 비약의 무진장한 잠재력은 다름아닌 천만의 심장마다에 끓어번지는 애국의 큰 힘을 밑뿌리로 하고있다.

사회주의 우리 집, 고마운 조국에 대한 믿음과 애착은 억대의 재부보다도 더 큰것이다.

인민에게는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과 같고 그것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어머니와 같은 품이 바로 사회주의이다.

하기에 이 나라의 인민은 자기들에게 생을 주고 존엄을 주고 후손만대의 복락을 누릴수 있는 고귀한 영광과 떳떳한 긍지를 준 이 고마운 어머니, 사회주의조국

과 혈연으로 결합되여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한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이렇듯 진실하고 열렬한 정과 사랑이라는 마를줄 모르는 젖줄기를 전진과 비약의 원천으로 하고있다.

죽음도 불사하는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였다.

이 력사의 진리는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을 생명에 대한 요구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것으로 새겨안은 조선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통해 그리고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자기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력사를 써나가는 훌륭한 인민을 통해 뚜렷이 증시되고있다.

사랑으로 더욱 강해지고 사랑으로 더욱 아름다워지는 사회주의조선이다.

차 례

1.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집 …………… 9

인민을 위한 참세상 ………………………………… 10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 25

덕과 정이 차넘치는 화목한 대가정 ……………… 39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대화원 ……………………… 53

2. 우리 집을 제일로 여기는 숭고한 정신세계 …… 69

김정일애국주의를 애국의 기준으로 ……………… 70

우리 국가제일주의 ………………………………… 86

우리 식, 자력갱생이 제일이다 …………………… 100

나의 일터를 사랑합니다! ………………………… 114

3. 사회주의 우리 집을 빛내여가는 애국자들 ……… 128

나라의 장한 맏아들 ……………………………… 129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 144

영웅청년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여 …………………… 158
사랑없인 못사는 마음 ………………………………… 172
금메달에 어린 뜨거운 애국심 ………………………… 187
사회주의 우리 집에 꽃펴나는 이야기 ……………… 201

4. 영원히 그대를 사랑하리라 ……………………………… 215

우리에겐 위대한 어버이가 계신다 ………………… 216
이 세상 다할 때까지 ………………………………… 231

1.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집

집!

행복한 삶, 화목한 가정, 소중한 재부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바로 집이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가슴에는 따스함이 깃든다.

부모와 자식, 형제들사이의 사랑과 정이 뜨겁게 넘치는 행복의 보금자리에 비겨 이 나라의 인민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우리 집이라 부른다.

인민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의 집, 사회주의 내 조국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의 요람이다.

온 나라가 하나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를 이루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끌며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특징이 있다.

인민을 위한 참세상

인류력사에는 각이한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왔다. 그러나 조선의 사회주의와 같이 인민이 그 기초로,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사회제도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하였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이 제손으로 일떠세운 력사의 첫 집, 영원한 조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이 있어,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뜻에 의해 세상에 나온 둘도 없는 인민의 보금자리가 바로 사회주의 우리 집,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인것이다.

인민을 위한 참세상, 이것이 70여년의 고귀한 력사와 더불어 가꾸어지고 빛내여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다.

돌이켜보면 조선의 사회주의건설력사는 세기를 이어오는 장구한 세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워온 나날이였다. 사회주의국가가 인민이라는 자기의 아들딸들을 위해 기울이고 베풀어온 사랑과 혜택은 이 나라의 어디에나 가득차있다.

그것은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근본으로 내세우고있는 사회주의제도에서 근로인민의 절대적지위와 권리가 법적으로 공고히 담보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이 법조항만 놓고서도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성격 그리고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이 얼마나 법적으로 철저히 옹호되는가를 뚜렷이 알수 있다.

온갖 국가적혜택을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사회주의헌법이 있어 이 땅에서는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굳건히 담보되고 인민들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보살핌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올수 있었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대의원이 되여 나라의 정사에 당당히 참가하고 광범한 근로대중은 정치와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장받게 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도와 국가적인 어린이보

육교양제도가 생겨나 자식들을 마음껏 공부시켰으면 하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숙원이 풀리게 되였다.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누구나 무병장수를 노래하고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며 사는 세월을 가져왔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이 나래치고 서로 돕고 이끌어가는 미풍의 화원속에서 사람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인공들로 새롭게 태여났다.

그 전변이 얼마나 감동적이였으면 《하느님》을 구세주로 믿고있던 어느 한 해외동포는 조국에 와서 인민들이 당과 국가의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해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잘사는 것을 보고 공화국이야말로 지상천국이다, 죽어서 《천당》에 갈것이 아니라 이 지상천국에서 오래 살아야 한다고 흥분에 넘쳐 진정을 터치였겠는가.

사회주의혜택속에 행복만을 누리던 공화국의 인민들은 시련속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귀중함을 다시금 똑똑히 깨달았다.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그 시절 상상도 못했던 시련과 피눈물나는 희생, 가슴을 허비는 괴로움을 다 이겨내야만 했던 이 나라의 인민이였다. 허나 그 아픔보다 더 뜨겁게 흘러드는것이 있었으니 고난속에서도 변함없이 와닿는 사회주의의 고마운 손길이고 시책이였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그때 학

교문과 병원문만은 절대로 닫기지 않았고 아이들을 위해 콩우유차는 하루도 번짐없이 달리였다. 모진 광풍이 불어쳐어도 자식만은 더 포근히 껴안아주는 어머니모습처럼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졌다. 사회주의조국의 따뜻한 품이 너무도 고마워 가슴을 적시던 이 나라 인민의 눈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것이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절대적믿음을 지닌 인민이 있었기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조선은 흔들림없이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키며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한없이 숭고한 리념이다.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데 있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바로 주체의 인민관이다.

인류사에는 인민에 대한 각양각색의 견해와 관점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인민의 지위를 희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경지로까지 올려세운 이러한 인민관을 인류사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밝힌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빛나게 구현되여 이 땅우에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인민사랑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습니다.》

최우선, 절대적으로!

12월의 피눈물바다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가슴마다에 와닿은 이 말은 오늘날 인민에 대한 관점, 헌신적인 복무정신의

절대적기준으로 되고있다.

최우선, 그것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제일먼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생각하며 인민의 요구를 풀어주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다는 투철한 복무자세이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인민우에 놓일수 없고 인민의 존엄과 리익은 어떤 경우에도 건드릴수 없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오직 완전무결함만이 있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복무관점이다.

지난 8년간의 나날은 공화국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투철한 인민관이 빛나게 구현되여온 나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립장이 응축되여있다.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림으로써 공화국정부는 자기 활동에서 철두철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하게 관철시켜왔다.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철저히 보장해나가며 무슨 일을 하나 작전하고 설계해도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기풍이 전사회적으로

확립되여갔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건축분야의 경우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주체건축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으로 규정하고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으로, 근본문제로 내세우고있다.

오늘날 건설부문에서 대단히 중시되고있는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의 건설원칙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나온것이다.

현대적인 거리를 하나 건설해도 거기에서 살 인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살림집의 책장 하나를 만들어도 그것을 쓸 인민들의 편의부터 도모되게 하고있다.

최근년간 조국땅우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하나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철저히 구현하여 일떠세운것들이다.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그리고 북방의 삼지연과 서해의 섬초소마을, 강원도 세포등판의 외진 곳의 살림집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주체적인 인민관, 인민철학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여있다.

평양의 룡흥네거리에 쌍벽을 이루며 특색있게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의 당반식책장 하나에도 인민의 편의를 제일로 간주하는 사연이 깃들어있다.

책상을 놓은 서재벽면에 설치된 당반식책장은 겉보기에는 비록 평범하지만 교원, 연구사들이 퇴근후 집에 들어와서도 학습과 교수준비를 하는데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가 뜨겁게 어려있어 사람들은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자연박물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도 다 인민사랑이 낳은 귀중한 결정체들이다.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여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사회주의적시책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의 해설문거리》와도 같은 문수지구의 병원촌거리에 가보면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시책의 고마움을 페부로 느낄수 있다.

불과 1㎞도 안되는 구간에 새 생명의 출생으로부터 어린이들과 녀성들,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각 분야의 현대적인

병원들이 종합체를 이루고있다.

애기궁전으로 유명한 평양산원과 나란히 하고 일떠선 유선종양연구소에 가면 한다하는 서방신사들도 믿기 어려운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다목적렌트겐, CT, 유선촬영기, 유관내시경, 유선조직절제기, 최신형마취기를 비롯하여 엄청나게 비싼 최신식의료설비들이 일식으로 갖춰진 치료실들과 수술실들은 말할것도 없고 호텔방처럼 꾸려진 입원실에서 평범한 녀성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병치료를 받고있다는 사실앞에서 누구나 놀라움을 감출수 없어한다.

간단한 검진을 받자고 해도 돈을 내야 하고 돈이 모자라면 찔렀던 주사바늘도 사정없이 뽑아버리는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기때문이다.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네트통신은 이렇게 전하였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녀성들을 위한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 및 과학연구기지이다. 특히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실현되여 전국의 녀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질병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녀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동화속의 궁전을 방불케 하는 옥류아동병원에 가보아도, 외형만 봐도 경탄을 자아내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돌아봐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천만금을 아끼지 않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절감할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로인들의 생활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신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불과 몇해사이에 전국적으로 애육원과 육아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이며 양로원들이 모든 조건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행복의 보금자리로 개변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그 따뜻한 보금자리들마다에서 원아들과 보양생들모두가 행복의 최정상에 올라서서 만사람이 부러워할 복을 누리고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이렇듯 인생의 첫걸음마를 뗄 때부터 마지막걸음까지 인민의 운명을 다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고마운 제도가 있는가.

결코 돈이 많아서 베푸는 혜택이 아니다.

천사만사의 국사중에서도 인민을 위한것을 제일로 간주하고 하늘의 별도 따다주는 심정으로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시켜주는것을 철칙으로 삼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인 정치와 시책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인민사랑의 정치와 더불어 이 땅우에는 자본주의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보다 높은 경지에서 발현되여나가고있다.

로동자들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로동계급의 세상에서 평범한 방직공, 제사공처녀들을 위해 로동자호텔이라 불리우는 로동자합숙들이 일떠서고 강성원이며 부흥원과 같은 문명기지들이 로동자들에게 통채로 안겨지고있다.

근면하고 소박한 협동벌의 주인들을 위해서 장천땅이 살기좋은 리상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농장도시로 일시에 변모되는것과 같은 천지개벽의 기적들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과학중시정치의 손길아래 현대적인 거리들이며 연풍과학자휴양소와 미래상점과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몇해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과학자, 교육자, 기술자들이 금방석우에 떠받들려 사회적인 존경과 우대를 받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새 세기 교육혁명과 더불어 국가적투자와 사회적지원이 더욱 늘어나 교육조건과 환경이 몰라보게 전변되고 새 세대들이 훌륭한 학교들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인재강국의 주인공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전국의 소학교 학생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소나무》책가방과 민들레학습장 그리고 새 교복들에도 인민사랑의 뜨거운 정과 손길이 슴배여있다.

참으로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는것이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제일중대사로, 본분으로 되고있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하늘땅차이가 있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만민의 《자유》와 《평등》, 《복지》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대도 실지에 있어서 인민대중은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한줌도 안되는 소수의 특권계층만이 정치를 좌우지하고 국가정책이 그들의 리익만을 대변할뿐이고 절대다수의 빈곤한 평민들은 정치적권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있으며 사회적 버림을 받고있다.

몇해전 《우리는 99%이다!》는 구호밑에 자본주의경제의 심장부이자 독점자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미국의 뉴욕월가에서 타오른 반월가시위가 80여개 나라의 1 500여개 도시에로 급격히 파급되였던 사실은 금융과두정치, 독점이 지배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의 정치상황, 경제상황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가 아니라 한갖 정치의 대상, 자본의 노예로밖에 치부되지 않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귀결인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는 필승불패의 사회주의이라는데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인민대중의 역할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선생이며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그런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는것은 국가사회발전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의 전진은 곧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한다는것은 무궁무진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그들을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으로 간주되며 모든 물질적재부들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공화국에서는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결과 청년돌격정신, 강원도정신과 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련이은 창조를 안아오며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변혁을 가져오고있다.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과학기술

강국, 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을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인재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독창적인 사상이 제시되고 그 요구에 맞게 이미 마련된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와 전민이 학습하는 체계를 통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을 강국건설에 필요한 인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전국에 그물망처럼 뻗어간 과학기술보급실과 원격교육체계가 국가적인 투자와 지도밑에 완벽하게 수립되여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선진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할뿐아니라 원격교육대학을 통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아래서 근로자들은 마음껏 배우고 일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밑에 지금 공화국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인재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있다.

하여 근로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유능한 실천가, 기적창조의 주인공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전변되는 놀라운 전진속도, 눈부신 비약이야말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가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만이 안아올수 있는 필연적인 산물인것이다.

이렇듯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정과 애국심에 의거하여 전진해나가고있다는데 자본주의에 비할바없이 우월한 조선의 사회주의의 무한한 발전잠재력이 있고 필승불패성이 있다.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있기에 오늘날 공화국의 위상은 나날이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세계는 그 경이적인 현실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렙취취》에 게재된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이렇게 평하였다.

《지금까지 세계가 평가해온 강국들은 인구수나 령토의 크기, 자원이나 재부, 지정학적위치의 유리성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나라들이였다. 그러나 조선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이다. 세계는 인민최우선, 인민절대시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에 매혹되였다. 조선이야말로 그 어떤 대국도 지닐수 없는 거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온 사회에 구현되고있는 공화국에서 오늘날 만사람의 심금을 틀어잡는 숭고한 부름이 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

바로 이 부름속에 인민에 대한 열렬하고 투철한 복무의 정신을 확립해가고있는 사회주의 우리 집, 인민의 나라의 진모습이 어려있다.

사회의 모든것이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공고성을 규정하는 기본척도의 하나이다. 세계의 주인,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그 향유자도 마땅히 인민대중이여야 하며 모든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조선의 흘러온 력사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절세위인들에 의해 이 땅우에 인민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빛나게 구현되여온 나날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복무로 일관된 사랑과 헌신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한생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며 이민위천의 숭고한 력사를 수놓아오시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이였고 무한대한 열정의 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고 정치도 인민을 위한 인덕정치이며 풍모도 고결한 인민적풍모이다.

자신께서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한평생 인민에 대한 헌신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복무의 성스러운 자욱은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히 새겨져있다.

일군들은 인민에게 호령하고 인민우에 군림하는 관료가 될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산이 높으면 백두산보다 더 높겠는가고 하시며 백두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해 험한 길도 웃으며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욱따라 인민의 새세상이 펼쳐졌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첫 페지를 쓰신 인민에 대한 복무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령도로 더욱 굳건히 이어졌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철석의 신조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에 언제나 앞장에 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강행군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백날을 호강하는것보다 더 좋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민헌신의 길에서 눈비바람을 다 맞으시며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시였다. 그것도 모자라신듯 겹쌓인 정신육체적과로로 인한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하기에 불사신과 같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그려보며 공화국의 인민들은 오늘도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 합치면 인민뿐이라는 인민사랑의 노래를 목메여 부르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로고가 있었기에 지난 세기 동유럽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엄혹한 시기에도 인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어머니조국에 대한 믿음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손길아래 인민들은 형언할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고 목숨처럼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으며 강국의 찬란한 려명을 불러올수 있었다.

장구한 인류력사에 《덕치》를 표방한 정치가들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처럼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인간적인 로고를 바친 정치가는 고금동서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세기와 더불어 변함없고 대를 이어 계승되며 더욱 승화되는것이 바로 인민복무의 세계인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복무력사는 오늘날 또 한분의 걸출한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멸사복무의 최상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계승되고있다.

오늘날 인민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멸사복무의 세계는 그 희생의 열도와 세기에 있어서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인민을 위한 복무의 계주봉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름아닌 멸사라는 두 글자를 새겨넣으시였다.

멸사복무!

그것은 말그대로 자기의 한목숨과 인민의 행복을 맞바꾼다는것이다.

생명을 내건 복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투철한 복무정신을 가지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가장 뜨겁고 철저하며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의 의지가 이 네 글자에 함축되여있다.

위대한 새시대의 표대와도 같은 멸사복무라는 말이 태여난 사연을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몇해전 1월의 평범한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집무탁우에는 인민들의 생활의 단면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물고기차를 맞이해 기뻐하는 보양생들, 생선국을 앞에 놓고 좋아하는 어린이들, 저저마다 앞을 다투며 공급받은 물고기를 날라가는 과학자가족들의 모습…

기쁨에 겨워 웃고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형언할수 없이 벅차오르는 격정을 친필에 담으시였다.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가자고 힘주어 써나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멸사복무라는 말은 이렇게 인민의 행복을 자나깨나 꿈꾸시는 절세위인의 사랑의 세계에서 태여났다.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열도를 론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뜨겁고 희생적이며 절대적인 헌신의 대명사는 없을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는 구호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의 최고발현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높이 추켜든 애민헌신의 기치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하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한알의 모래알처럼 작아질 때까지, 하나의 점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려는 지극한 희생정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령도에 의해 이 땅에서는 멸사복무의 새로운 력사가 흐르게 되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지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최상최대의 사랑이며 헌신이다.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모든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되고있으며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고 최우선시되고있다. 한마디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최대로 중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라고 하시면

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해나갈것이며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당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것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나갈것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은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이 땅에 태를 묻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천신만고를 다하여 끝까지 보살펴주는데서 뚜렷이 발휘되고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들에게 값높은 삶과 행복을 안겨주고 그것을 억척같이 지켜주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나라잃은 인민의 운명만큼 비참한것은 없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야만적인 폭제가 만용을 부리고있다. 그 결과 세계도처의 일부 나라와 인민들은 심각한 정치, 경제적위기에 빠져들어 류혈적인 분쟁과 무질서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있다.

이러한 오늘의 세계에 비추어볼 때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은 무엇보다 적대세력들의 침략정책을 저지시키고 전쟁을 영원히 막는 강력한 힘을 마련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만난신고를 끝까지 이겨내고 마침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완성시킴으로써 후손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처절한 고생과 시련을 다시는 겪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된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인민을 위하여 이룩한 가장 큰 력사적승리이다.

지난 시기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공인되여있던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흐름이 태동하고 공화국에서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이 총동원되고있는 놀라운 현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 희생적헌신으로 전대미문의 험로역경을 굴함없이 헤치시며 조국과 인민을 이끄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금 광활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진정한 운명의 수호자를 만나지 못하여 인민들이 전란과 류혈참극, 테로와 보복의 불도가니속에 빠져든 여러 나라들의 실태를 보면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무한한 긍지를 가슴뿌듯이 새겨안고있다. 이와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멸사복무의 길을 꿋꿋이 이어 행복과 번영의 영원한 터전을 마련해준 위대한 령도자께 진정넘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과 국가의 진모습은 시련이 겹쌓인 시기에, 예상치 않던 자연의 대재앙이 들이닥친 시기에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도 사람들은 저 멀리 최북단 라선땅과 두만강연안의 피해지역에서 한해를 사이에 두고 펼쳐졌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전설같은 화폭을 생각할 때면 사회주의에 대한 더없는 고마움으로 눈굽을 적시군 한다.

2015년 8월 불과 몇시간동안에 300㎜이상 쏟아진 집중폭우로 하여 라선땅이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세상사람들은 그로부터 불과 30여일만에 선봉지구의 백학동을 비롯하여 전대미문의 재난을 당했던 피해지역이 그 전날의 모습을 도저히 찾을수 없이 천지개벽을 하는 신화와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은정어린 액정TV와 벽장들이 갖추어진 살림방들, 찬장마다 가득찬 각종 경질유리그릇들과 여러개의 가마들이 설치된 부엌, 그득그득 쌓여있는 땔감들과 터밭에서 푸르싱싱한 잎새를 펼친 남새들…

뜻밖의 재난을 당한 때로부터 날에 날마다 뜨거운 사랑의 손길아래 근심걱정없이 생활해오던 피해지역 주민들은 얼마 안되여 모든 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볼수록 마음에 꼭 드는 새 살림집을 받아안고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

그 다음해 2016년에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온 나라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던 그때 나라의 북변 두만강류역에서 해방후 기상관

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여러 시, 군에서 막대한 자연피해를 입게 되였다.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수백동의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철길과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과 전력공급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들이 파괴, 침수되여 수만명의 인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으며 함북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커다란 재난을 가져왔다.

그 피해규모에 있어서 전해의 라선피해와는 대비도 안되는 너무도 혹심한 대재앙을 두고 세계가 커다란 우려속에 조선에 동정의 눈길을 돌렸고 적대세력들은 때를 만난듯이 쾌재를 불렀다.

바로 그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사랑하는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전환시키고 북부지구피해복구를 위한 전선사령부를 조직해주시는 력사에 없는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강추위가 오기 전에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살림집부터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건설을 피해복구전투의 선차적인 건설대상으로 정해주시고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북부피해지역에 타오른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불과 두달 남짓한 사이에 대재앙의 흔적을 완전히 가시고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는 꿈같은 천지개벽이 일어나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그때 한날한시에 큰물피해를 입고 돈보따리를 들고 피난을 갔던 다른 나라의 재해민들은 자기들은 아직까지도 한지에서 떨고있는데 조선의 피해지역 인민들은 60여일만에 사회주의무릉도원의 주인들이 되는 너무나 상반되는 현실앞에서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을 제일로 위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하였다고 한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제일가는 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설사 심심산골에 있어도, 대재앙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운것 없으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리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 이것은 북부피해복구전투를 통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이 심장깊이 체득한 진리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기풍은 인민들의 심부름군인 일군들이 사람들모두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광휘로운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해 만짐을 지고 헌신분투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오늘의 총진군길은 최단기간내에 공화국을 정치와 군사는 물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령역에서 강국의 지위를 당

당히 차지하고 전체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가게 하자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유리한 환경이나 훌륭한 조건속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까지 겪었던 시련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가장 첨예하고 준엄한 역경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이 전대미문의 난관을 뚫고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는데서 제일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는것이 다름아닌 일군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척후병이 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말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오늘도 사람들은 몇해전 만경대유희장의 운영실태를 료해하시던 그날 인민들을 귀하게 여길줄 모르는 일군들이 천만명이 있은들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하시며 인민들에 대한 복무정신을 똑바로 간직하도록 경종을 울리시던 원수님의 준절한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현지지도는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관점을 들어내고 인민에 대한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새겨주는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란 어떤것인가를 걸음걸음 가르쳐주고계신다.

삼복의 무더위와 억수로 쏟아지는 장마비도, 세차게 불어치는 차디찬 바다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공장, 기업소, 건설장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에서 날과 달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들이 리용할 물놀이장의 형성안만 해도 무려 113차례나 지도해주시고 마식령스키장의 시운전용삭도도 남먼저 타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며 그이의 투철한 멸사복무의 세계를 눈물겹게 받아안은 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귀감을 본받아 일군들속에서는 생눈길,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푸는데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소행들이 수많이 발휘되고있다.

뿌리처럼, 흰눈처럼, 초불처럼!

이것이 오늘의 시대에 사는 일군들이 가슴마다에 새겨놓은 멸사복무의 좌우명이다.

땅우에 드러난 잎사귀나 줄기가 아니라 누가 보건말건 깊숙이 땅속에 자기를 묻으며 인민의 행복이라는 거목을 가꾸

는 뿌리와도 같은 희생성.

자기를 깡그리 녹여 대지에 생명수를 더해주는 흰눈과도 같은 그지없이 깨끗한 진정과 량심.

마지막순간까지 제 한몸을 태워 빛과 열을 더해주는 초불과도 같이 인민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무한한 헌신성.

이것을 신념화, 체질화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일을 찾아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멸사복무의 자욱을 새겨가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다.

오늘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울려퍼지는 곳, 살림이 나날이 풍성해지고 일터자랑, 마을자랑이 꽃피는 곳에 가보면 의례히 그런 일군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인민의 성실한 심부름군들을 《우리》라는 호칭으로 정담아 부르고있으며 그들의 친근한 모습에서 사회주의 우리 집의 소중함을 더욱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모든 현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야말로 온갖 도전과 시련을 맞받아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대가정을 화목하게 꾸리며 내 조국의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하는 필승의 보검, 창조의 원천임을 뚜렷이 증시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에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들은 당과 국가에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받드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

리 국가의 참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중의 근본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이 리상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고 힘있게 천명하시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위력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며 사회주의 우리 집, 공화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덕과 정이 차넘치는 화목한 대가정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을 가리켜 사람들은 한결같이 화목한 대가정이라고 긍지높이 말한다.

하다면 사회주의대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누군가 말하기를 가정이야말로 사랑이 있으면 천국,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라고 하였듯이 사회주의대가정의 화목도 덕과 정으로 뜨거운 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덕과 정은 사회관계의 기초이며 집단의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놓고볼 때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대가정, 사회주의 내 조국이다.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로 존엄떨치고있을뿐아니라 온 사회에 덕과 정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세상사람들의 경탄과 부러움을 모으고있다.

사실 국가사회제도의 존립과 발전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요인들가운데서 덕과 정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고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의 공고성과 발전성은 중요하게 그 국가에 지배하는 사회관계 다시말하여 사회생활과정에 맺어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기때문이다.

물론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은 법이며 사회생활에서 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법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바로 덕과 정이다.

이 세상에는 수천수만가지의 법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만사를 다 총찰할수 없으며 법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것이 바로 도덕과 의리라는 말도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사회의 건전함을 평할 때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것이다.

덕과 정으로 결합된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나라는 온 사회에 화목하고 건전한 분위기가 차넘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사분오렬되여 쇠퇴와 몰락을 면할수 없다.

덕과 정이 사회제도의 존립과 발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회가 다 덕과 정으로 결합된 사회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사회는 그것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 계급적모순과 대립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사회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사회와 집단보다도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인간에게 고유한 미덕과 인정이 돈이나 권력에 의하여 짓밟히우는 사회가 다름아닌 자본주의사회이다. 패륜패덕이 란무하고 사람들사이에 서로 반목질시하며 물고뜯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야말로 덕과 정이 메마른 사회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는 언제 가도 인간에 대한 진실한 덕과 정이 지배하는 참다운 문명사회로 될수 없는것이다.

오직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에서만이 따뜻한 정과 사랑이 흐르는 참다운 인간사회, 문명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덕과 정이 차넘치고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일심단결의 화원이다.

덕과 정이라 함은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도와주거나 보살피며 혜택을 베푸는 고상한 품성, 남을 사랑하거나 친근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온 나라에 덕과 정이 차넘친다는것은 사람들사이에 서로 진심으로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헌

신의 관계가 사회를 지배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혼연일체를 생명으로 하는 공화국에서는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친혈육과 같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활하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 집안, 한식솔이 되여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동지애와 의리심,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굳게 이어진 여기에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조선의 사회주의의 절대적우월성이 있다.

덕과 정으로 결합된 공화국의 참모습은 무엇보다도 누구나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의 존재와 발전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며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사회와 집단을 위한데로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실천이 지향되고 복종되며 그 과정에 뜻과 정이 오가는 참다운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태이고 륜리로 된다.

집단주의를 기초로,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것이 고상한 미풍으로, 더없는 긍지와 자랑으로 간주되고있다.

개인의 향락보다도 사회와 집단,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이 지니

고있는 고유한 풍모중의 하나이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고있다.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는것, 이것은 인간사랑과 화목의 최고발현이 아닐수 없다.

오늘 공화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인간애와 삶의 본보기로 깊이 새겨진 훌륭한 인간들이 수없이 많다. 그가운데서도 류달리 사람들이 못 잊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2012년에 온 나라에 널리 소개되였던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평범한 제대군인출신의 광부였던 박태선과 연백벌의 소박한 농장원이였던 리창선이다.

례사로운 날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 동지들을 구원한 이들의 소행은 현시대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고결한것인가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3t이나 되는 큰돌이 채광장바닥에 떨어지는 위기일발의 순간 박태선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동지를 구원하였다. 사실 떨어지는 큰돌을 먼저 발견한 박태선이 만약 한걸음만 뒤로 물러섰으면 살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보다 동지를 먼저 생각하였다.

섬광과도 같은 순간에 박태선이 그토록 고결한 인간애의 참모습을 남길수 있은것은 바로 그가 누구보다 자기 가정을 사랑했고 자기 동지들과 일터를 사랑했기때문이였다.

황해남도 연백벌의 평범한 30대농장원이였던 리창선도 가슴속에는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있던 참사람이였다.

생의 마지막날도 복토감으로 쓸 흙을 파내는 작업에 솔선 앞장서 일자리를 푹푹 내던 그는 뜻밖에 녀성분조원들이 등지고있던 흙벽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것을 발견하자 번개같이 몸을 날려 세명의 녀성분조원들을 밀쳐버리고는 그만 흙무지에 묻히고말았다.

《분조장동무!》

분조원들이 애타게 부르며 흙무지에서 그를 파내였을 때 그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는 자기를 에워싼 분조원들중에서 세명의 녀성을 알아보고는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렇게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아마 무엇을 생각할새도 없었을겁니다. 그야말로 본능적인 행동이였습니다.》

이 말은 그에 의해 구원된 한 녀성농장원의 고백이다.

다 아는것처럼 불티가 한점 몸에 닿아도 흠칫 물러서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다. 더우기 사경에 처하면 사람은 삶을 추구하기마련이라는것은 세상일반에 인식된 인간본능이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이 땅에서는 남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목소리가 확신성있게 울리고있는것인가.

그것은 나보다 먼저 우리를 더 중히 여기고 동지들과 집단

의 기쁨이고 행복이자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것을 누구나 가 확고한 생활관으로 간주하고있기때문이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생의 희열과 갈망으로 되며 시대정신으로 온 사회에 발현되고있다. 하여 이 땅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같은 인간애, 무비의 희생성을 본능으로 지니고있는것이다.

개인주의에 물젖어 《너 아니면 나》라는 가치관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시대의 영웅들로, 미덕의 체현자들로 떠받들리운 금골의 박태선과 연백벌의 리창선과 같은 훌륭한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는 만사람들에게 오늘의 새시대에 어떻게 삶을 빛내여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었다.

하기에 지금 이 땅 그 어디 가나 자기를 바쳐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인간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가정에는 미덕의 향기가 차넘치고있다.

몇해전 23살 꽃나이처녀로 이 나라 동해의 한끝 려도방어대의 학교 교원으로 자원진출한 리정화의 삶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조국수호의 전초선을 지켜가는 군관의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일념을 안고 나서자란 평양의 정든 집과 교단을 떠난 그날로부터 3년세월 그는 외진 섬에서 깨끗한 량심과 헌신으로 조국의 미래인 후

대들을 훌륭히 키워가고있다. 섬방어대로 자원진출하던 초심을 항상 되새겨보며 오로지 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한 그였기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도 참가하였고 지난해에는 은정어린 축복속에 뜻깊은 평양견학을 하게 되였으며 그 나날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한번 선택한 길을 꿋꿋이 걸어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 고마운 마음들이 있어 리정화는 인생의 절정에 오를수 있었다. 친혈육과 같이 위해주는 진정어린 손길과 마음들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방어대로 떠날 때에는 우리 구역의 장한 딸을 보란듯이 내세워주자고 하면서 갖가지 생활용품들을 일식으로 다 마련해준 구역안의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비오는 깊은 밤 바람세찬 섬에서 한밤을 보낼 그를 걱정하여 전화를 걸어주는 다심한 구역의 일군.

려도방어대의 학교를 자기 학교의 분교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교탁과 콤퓨터, 콤퓨터탁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고 섬학교를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는 릉라소학교의 교원들.

대학의 영예를 빛내인 졸업생으로 언제나 나라의 장한 딸로 삶을 빛내이도록 힘을 주고 믿음을 준 정다운 모교인 평양교원대학의 일군들과 선생님들.

이런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그는 지금도 누가 보건말건 스스로 선택한 섬분교에서 깨끗한 량심을 묵묵히 묻어가고있다.

서로를 위해주는 덕과 정이 흘러넘치는 지금 공화국에서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그들속에는 전쟁로병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처럼 따뜻이 돌봐주고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하며 자신을 바쳐가는 뜨거운 인간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여기에 한 녀인이 수십년동안 걸어온 인생의 자서전과 같고 훈장과 같은 수많은 호칭들을 적어본다.

《삼지연혁명전적지건설장 석공작업반 명예석공》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명예용해공》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초고전력전기로 명예용해공》

《수도려객운수국 송산궤도전차사업소 명예종업원》

《칠골혁명사적지 명예종업원》

…

한생의 기록과도 같은 이 호칭들의 주인공은 평양의 광복거리에 사는 서재렬녀성이다.

남에게 피부를 이식해준 자리가 온몸에 가득하고 특류영예군인남편을 위해 한생을 바쳤으며 오늘은 색날은 지원배낭을 무겁게 지고 많은 곳을 찾아 먼길을 걷고있는 녀인.

그는 남편도 잃고 자식 하나 남기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외롭지 않다. 사회주의 이 큰집의 제일 중요하고 힘든 곳에 가보면 누구나 다 그를 알고있으며 저저마다 친자식이 되여 《우리 어머니》로 떠받든다.

조국을 위해 바치는 그의 한생이 너무나 가슴에 젖어와 자기 집의 어머니로 모신 방송원도 있다. 그에게는 아프면 찾아오는 일군들도 있고 명절날이면 함께 즐기자고 모여오는 유명무명의 식솔들도 많다.

이렇듯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조국과 집단, 동지들을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뒤떨어진 사람, 생활상애로를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집단주의위력으로 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이 덕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 우리 집인것이다.

사랑과 정을 다해 조국을 받들어나가는것을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주하고있기에 시대가 떠받드는 미덕의 주인공들은 사회와 집단앞에 지닌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거운 짐을 떠안고 이 길을 변함없이 걸어오고있는것이다.

자기자신보다 사회와 집단,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불같이 헌신하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고많아 사회주의조국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덕과 정으로 결합된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은 누구나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적극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

는 아름답고 고상한 사회적기풍이 날로 높이 발휘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사람들모두가 일터와 직무는 서로 달라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한집안식솔이라는 높은 공민적자각을 지니고있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어느 누가 새 살림집을 받았다고 하면 다같이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가 하면 사경에 처한 생면부지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겠다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어느 지역이 자연재해를 입었다고 하면 온 나라 인민이 제가 당한 불행처럼 여기며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서는것과 같은 아름다운 화폭들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단순한 피해복구전투가 아닌 사랑과 인정의 대격전으로 불리워진 지난 2016년의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하많은 긍정적소행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나라의 일터와 가정, 마을들에 꽃펴났다.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과 평범한 로동자, 농민, 과학자들의 가정마다에서 꽃펴나는 혈육의 정과 사랑은 천길 땅속의 진주보석인양 아름다운 빛을 뿌리며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다.

그가운데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정상이 눈앞에 얼른거려 부

랴부랴 수많은 이불감과 함께 150벌의 아동옷과 아동신발, 솜옷을 마련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보낸 평양시 중구역의 평범한 가정주부의 소행도 있다.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거세찬 열풍에 남먼저 화답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강재생산과 출입문, 창문제작과제를 무조건 끝낸 자강도의 로동계급들, 그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여 성의껏 만들어 보낸 출입문과 창문을 비롯한 건구와 마감자재들을 받아안던 날 피해지역 주민들과 건설자들은 친부모, 친형제보다 더 지극한 자강도인민들의 열화같은 진정에 뜨거운것을 삼키였다고 한다.

재해지역 인민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자기의 아픔처럼 생각하며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품들여 마련하여 간수한것을 주저없이 전부 피해복구지역으로 보낸 지방도시 평성의 자그마한 관리소의 소장과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자금과 지원물자를 정성껏 준비하여 보낸 종업원들의 소행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모두의 친혈육들이나 같습니다.》

그 기업소 종업원들가운데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부모형제나 친척, 친지를 둔 사람이 있는가고 물었을 때 관리소 소장이 한 말이다.

그의 이 말속에는 전사회가 친부모, 친형제가 되여 사는 사회주의 우리 집의 아름다운 모습, 고결한 진정의 세계가

그대로 담겨있다.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덕과 정의 크나큰 힘이 있었기에 북부전선에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승전포성은 높이 울리고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대경사가 펼쳐질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온 사회에 차넘치는 덕과 정을 두고 그 누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특산》이고 《특허》라고 경탄해마지 않고있다.

언제인가 로씨야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오른 《조선특유의 사회현상》이라는 글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활동이 아름다운 삶으로 평가되고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더없는 긍지로 생각하는것이 바로 조선인민의 정신적특질이라고 하면서 세계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요소들이 조선에는 없으며 조선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사랑과 정이 넘치는 참다운 인간사회를 이룬 공화국의 현실을 《남의 불행이 곧 자기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개인주의적생활방식의 소유자들은 절대로 리해하지도 리해할수도 없는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에게는 생활상애로나 어려움이 적지

않으며 의연히 시련과 난관도 있다. 더우기 조선의 굴함없는 의지와 자력갱생의 힘찬 전진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은 야만적인 제재봉쇄로 공화국의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 온 사회에 공기처럼 흐르는 덕과 정을 말살하고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서슴없이 희생하는 조선인민의 도덕의리와 인정의 세계를 절대로 허물수 없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사회주의도덕과 생활양식에 배치되는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쓸어버리면서 사회주의본태를 적극 살려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해나서고있다.

사회주의 우리 집에 지배하는 고상한 인간미와 순결한 륜리도덕은 자기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진실하고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력은 참으로 지대하다.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천만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오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일심단결의 화원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덕망과 숭고한 풍모,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야말로 사회주의조국을 덕과 정이 만발하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으로 꽃피우는 자양분

이다.

정녕 인민이 주인된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덕으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흥해가는 사회주의대가정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락원인것이다.

그래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사회주의 우리 집을 그토록 사랑하는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것이다.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대화원

세상사람들은 사회주의조선을 가리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일심단결의 나라이라고 격찬하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더욱 뜨겁게 결합되여 일심일체를 이루고 그 무엇에도 비할바없이 강력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천하제일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진정한 위상이 있다.

오늘날 창공에 나붓기는 람홍색공화국기의 펄럭임과 더불어 이 땅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가꾸어가는 혼연일체의 아름다운 대화원이 만발하게 펼쳐져 일심단결의 초석우에 굳건히 서있는 불패의 강국의 위용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단결은 국가의 발전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단결이자 민족번영의 열쇠이고 사회발전의 추동력이라는것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여도 변함이 없는 국가발전의 공식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장장 70여년의 공화국의 력사는 단결로 강해지고 단결로 승리한 말그대로 위대한 단결의 서사시로 빛나게 수놓아진 일심단결의 력사이다.

해방직후 힘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력사적인 호소와 더불어 건국의 첫삽도 수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뜨고 자주, 자립, 자위의 길도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걸어온데 우리 공화국의 독특한 개척과 번영의 력사가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은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로숙한 령도예술로 온 사회의 일색화를 실현하시여 이

땅우에 일심일체의 새로운 경지를 펼쳐놓으시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의 언덕에서 보내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가자는 친필서한은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제낄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온넋을 깡그리 불태우신 장군님의 애국주의는 천만의 심장이 애국의 일념으로 고동치게 한 자양분이였다.

참으로 절세위인들의 단결의 사상, 단결의 리념, 단결의 정신이 철저히 구현되여온 전 로정은 일심단결이야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강의 무기로 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증시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한것은 총결기간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업적이라고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우리 집의 더없이 소중한 가보로 마련해주신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고귀한 전통과 위력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최상의 경지에서 계승되고 발양되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

가는 비약과 변혁의 시대이다.

격동적인 시대는 위대한 단결을 요구하기마련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력중의 제일국력인 일심단결을 강국건설의 최강의 무기로,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백승의 보검으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철학도 단결의 철학이고 원수님의 국가발전전략도 단결의 전략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시작도 일심단결로 떼시고 천만인민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사회주의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에 수놓아지는 일심단결의 숭고한 화폭을 보면서 세상사람들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주체조선의 무한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고있다.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기초하고있다는데 근본특징이 있다. 일심단결된 나라란 하나의 지도사상뿐아니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확고히 지배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수령과 인민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야말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발현이다.

오늘의 시대에 공화국인민들의 고결한 도덕의리심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

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고있는데서 뚜렷이 발휘되고있다.

순결한 계승, 확고한 고수, 여기에 수령에 대한 최고의 도덕의리가 있다.

공화국에서는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공화국의 건설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심으로써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천만인민모두가 억세게 전진해나가고있다.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는것이 이 나라 인민들의 고결한 풍모로 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뿌리신 씨앗들을 풍만한 열매로 꽃피우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사람들모두가 절세위인들의 한생의 념원과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태양의 모습으로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가는 충직한 인민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강국건설의 매 전구들마다에서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이 눈부신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령도자에 대한 공화국인민들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벅찬 투쟁속에서 최상의 경지로 승화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에 끝없이 매혹되여 그이를 하늘처럼 믿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것은 천만인민의 드높은 사상정신적풍모이다.

그 어떤 권력이나 강요로도 얻을수 없는것이 민심이다.

령도자를 열렬히 따르는 민심은 사상과 령도, 풍모에서 그 누구도 견줄수 없이 비범한 위인에 대한 끝없는 매혹이며 하늘땅이 뒤집힌대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려는 억척의 신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덕으로부터 뛰여난 인품과 소탈한 성품, 검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풍모와 특출한 위인상은 만사람을 감동시키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그이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며 투쟁하고있다.

피눈물의 12월 그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세월은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사회주의 우리 집의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열화와 같은 충정으로 그이를 받들어나감으로써 일심단결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참으로 의의깊은 나날이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8년간의 나날에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들이 이 땅우에서는 년년이 펼쳐져 만사람을 격동시키였다.

너무도 뜻밖에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여지는것 같은 대국상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은 혈연의 하나가 되였다.

불같은 사랑과 무한한 포옹력으로 인민을 껴안아 슬픔을 가셔내고 산악처럼 일으켜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인민은 그 어떤 주저도 없이, 그 어떤 격식도 없이, 그 어떤 떠밂도 없이 안기였다.

우리에게는 원수님께서 계신다!

이 세상 끝까지 오직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리라!

이런 신념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으며 천만인민모두는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장엄한 행군길에 용기백배해 들어섰던것이다.

원수님을 따라나선 그 길에서 인민들은 력사의 온갖 역풍속에서도 일편단심 그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목숨으로 옹위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배해나갔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이 더없이 신성한 부름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인민들의 가장 순결하고 열렬한 숭배와 신뢰심의 최고발현인것이다.

날과 달이 바뀔수록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는 매혹과 흠모

심으로부터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국과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통채로 맡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 나라 천만인민들의 절대불변의 믿음의 분출과 더불어 그이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 특기할 대경사들이 일어났고 혼연일체의 위력은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온 나라가 격동으로 끓어번지던 지난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대표하여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정치사상적힘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비범한 정치실력과 령도력으로 사회주의조선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후손만대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와 신뢰심의 발현인것이다.

력사의 엄혹한 역풍과 시련의 광풍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옹성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성새에 실금도 낼수 없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2013년 12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던 신념

의 노래소리를 잊지 못하고있다.

…

하늘땅 바뀐대도 역풍 분대도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령도만 받들어가리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천만의 대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억세게 뭉치였으며 조선의 일심단결은 더욱 정화되였고 그 위력은 무궁무진해졌다.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에 환장한 적대세력들이 해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몰아올 때에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해나섰다. 힘으로는 어쩔수 없게 된 적대세력들이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과 《인권》놀음으로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고 달려들었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원수님 계시여 누구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히며 최후승리의 래일을 향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분발해나가고있다.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서는 한해한해 얼마나 많은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는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는 드높은 만세의 환호성속에 세상이 보란듯이 혼연일체의 장엄한 화폭이 펼쳐졌다.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에 즈음한 정치행사들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을 만대에 빛내여갈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만방에 과시되였다.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승리와 영광의 해로 아로새겨진 2015년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천만이 하나된 일심의 힘을 총폭발시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빛내이였다.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커다란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으며 일심단결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주체조선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어찌 그뿐인가.

위대한 전환의 해 2016년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의의깊은 대정치축전으로 진행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려는 천만인민

의 철석의 의지가 힘있게 확증되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인 2017년.

이해에 조선인민은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국력강화의 진군길을 줄기차게 내달림으로써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는 력사적대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지난해 2018년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 국력이 세계만방에 긍지높이 떨쳐진 력사적인 해였다.

특히 9월의 성대한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공화국의 위력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영웅적조선인민의 강렬한 의지가 다시한번 세계앞에서 뚜렷이 증시되였다.

9월의 경축광장에 도도히 굽이친 열병대오와 시위대렬 그리고 홰불바다는 말그대로 공화국의 위상을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시고 강국의 인민된 존엄을 떨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일심의 대오의 노도치는 흐름이였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혼연일체의 대하였다.

람홍색공화국기가 나붓기는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친 만세

의 환호성, 축포성은 운명의 태양을 우러러 일심의 천만심장들이 활화산마냥 터치는 열렬한 숭배와 숭고한 도덕의리의 뜨거운 분출이였다.

그 경이적인 화폭들을 놓고 세계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면서 《령도자에 대한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심과 고결한 충정의 세계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재현할수 없는, 오직 주체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일심단결의 위력이 낳은 이렇듯 특기할 사변들과 더불어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비약과 혁신의 성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창조되였는가.

그야말로 날과 달, 한해한해가 일심단결의 대하로 세차게 굽이쳐 련전련승의 쾌거들, 영웅적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인민의 실천으로 되였다.

강국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였기에 공화국기가 새겨진 인공지구위성이 련이어 날아올라 우주강국의 위용을 만리대공에 새겨놓을수 있었고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날수 있었다.

원수님 바라시는 일이라면 천만인민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은 마식

령속도, 조선속도, 평양속도와 같은 신화적인 전진속도를 창조하였고 만리마의 기세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놓았다.

사랑하는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결심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울 일념으로 불타는 마음들이 있어 이 땅우에는 새 문명의 희한한 세계가 꽃펴나고 《철령아래 사과바다》, 《이채어경》과 같은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질수 있었다.

일일이 다 꼽을수 없이 많고많은 그 모든 경이적인 성과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혈연의 뜻과 정으로 결합된 공화국의 인민들에 의해 발휘된 일심단결의 힘만이 낳을수 있는 귀중한 결실들인것이다.

일심단결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헌신의 끊임없는 장정길을 이어가시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대는 혈연의 관계, 이것이 조선의 일심단결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바치는 충정의 일편단심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제일생명으로 여기고있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은 나날이 열렬하고 굳건해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은 보다 위력해지고있다.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뜨겁게 흐르는 그리움과 강렬한 정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령도자는 사랑하는 인민을 더없이 그리며 끊임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 인민은 위대한 어버이를 자나깨나 그리며 충정의 위훈을 빛내가는 바로 여기에 혼연일체의 참모습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은 이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닿아있다.

인민에 대한 그리움, 멸사복무정신이 그렇듯 강렬하시기에 지난해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고온과 무더위가 들이닥쳤던 삼복철의 나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옷자락을 땀으로 적시시며 끊임없는 애민헌신의 길에 계시였다.

폭열이 무섭게 내려쪼였던 지난해 7월초부터 8월초까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단위들은 공식 보도된것만 하여도 평안북도와 량강도, 함경북도와 강원도,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와 시의 20개 단위를 넘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주신 곳마다에서는 또 얼마나 눈물겨운 화폭들이 펼쳐졌는가.

누구나 할것없이 격정의 눈물부터 쏟으며 그이의 넓은 품에 스스럼없이 안겨들고 그이께서 떠나가실 때면 차디찬 바다물속에도 저저마다 뛰여들면서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는 불타는 소원의 노래를 목메여 부르고부른 인민들이다.

그리움은 떨어져있을 때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다.

지난해와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였을 때 온 강산은 말그대로 그리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먼길떠난 아버지를 그리는 자식들의 마음이런듯, 어버이의 로고를 생각하고 그 진정에 목메이는 아들딸들의 심정이런듯 인민은 외국방문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넋으로 그리며 걸음걸음 따라섰다.

그이께서 가시는 곳의 날씨상태를 알아보며 그이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누구나 한사람같이 일터와 전투장마다에서 전례없는 창조와 위훈의 자랑찬 성과들을 창조하였다.

쇠장대를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그리움의 하늘가를 쇠물노을로 붉게 물들이는 철의 기지들의 로동계급, 련일 굴진속도를 높여 채광량을 늘이고 석탄산을 높이 쌓아나가는 광부들과 탄부들, 사회주의대지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가는 농업근로자들, 탐구와 열정으로 날을 맞고 밤을 보내는 미더운 과학자들…

뜨거운 격정없이 볼수 없는 이러한 감동적인 화폭들을 펼친 한사람한사람의 진정어린 모습에서 세계는 자기의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이 나라 인민의 고결한 풍모를 격동적으로 체험하였다.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이 감동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한 어느 한 나라의 기술자는 자기의 진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관례적이다. 잠간 조국을 떠난 자기의 령도자를 생각하며 온 나라가 절절하게 그리워하고 기다린다는 그자체가 어디서도 본적 없고 듣지도 못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듯 령도자와 인민이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 한피줄로 굳게 이어진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 나라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이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제일가는 힘이며 우리 공화국을 이 세상 가장 강대하고 눈부신 나라로 빛내이게 하는 기적의 원천이라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이 나라 인민들은 그이를 세월의 끝까지 따를 신념의 맹세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일심단결!

정녕 이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조선,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 우리 집의 영원한 모습이다.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강국》이라는 숭고한 부름과 더불어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기의 존엄과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칠것이다.

2. 우리 집을 제일로 여기는 숭고한 정신세계

인민의 진정한 보금자리인 사회주의 우리 집은 참다운 애국의 넋과 의지를 지닌 애국자들의 대가정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사람들모두가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삼고 생활에 구현해나가고있다.

지금 나라마다, 민족마다 애국을 제창하고있다. 국민적인 애국심고취를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애국을 중시하고 애국자를 찬양하는 분위기는 세계적범위에서 그 어느때보다 심화되고있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국에서처럼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같은 최고의 애국주의가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강국건설의 무한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삶과 투쟁의 본보기로 삼

고 자기 집뜨락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일터, 국가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자들에 의해 굳건하게 떠받들리우고있다는데 사회주의 우리 집의 참모습이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애국의 기준으로

예로부터 조선민족은 다른 그 어느 민족보다도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였다.

반만년의 민족사의 갈피마다에는 수많은 명인, 명장들의 애국적장거들이 새겨져있고 남달리 대바르고 특출한 애국의 넋과 기개에 대한 이야기들도 무수히 담겨져있다.

대대손손 굳건히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애국적인 사상감정은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진정한 인민의 국가가 세워진 그때로부터 참다운 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승화되게 되였다.

70여년의 공화국의 력사는 절세의 애국자들의 빛나는 귀감과 함께 조국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애국심이 싹트고 자라나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공고화되고 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지키고 빛내인 성스러운 애국의 력사이다.

수령의 애국사상과 정신으로 맥맥히 흘러온 빛나는 전통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번영을 이룩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와 더불어 최고의 경지에서 계승되고있다.

력사적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공화국에서 부강조국건설의 힘있는 원동력으로 내세운것이 바로 **김정일**애국주의이다.

애국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도덕적감정과 헌신의 립장을 말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실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애국주의로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을 본질적의미로 하고있다.

력사에는 후세에 이름을 남긴 애국자들이 많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처럼 한생을 조국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으로 불태우시고 나라와 민족의 앞길에 세세년년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휘날릴수 있는 애국사상과 정신을 남긴 그런 애국자, 위인은 정녕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불멸의 애국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김정일애국주의!

그것은 고난의 행군을 열백번 하더라도 절대로 양보함이 없이 제국주의와 맞서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는 정신, 내 나라를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건설하려는 정신으로 한생을 불태운 위대한 인간의 삶의 서사시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그 열도에 있어서 가장 뜨겁고 가장 열렬한 사랑이라는데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뜻의 하나가 있다.

참다운 조국애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견해와 관점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그이께서 체현하신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에서 흘러나온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조국을 아득히 먼 옛날부터 조상들이 대대손손 살아오고 선조들의 넋이 깃들어있는 정든 곳이라고 말한다. 물론 조국이라고 할 때 그것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가리키는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국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이라는 단순한 력사적개념이나 령토적개념만을 포함하는것이 아니다.

사람을 떠나 사회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조국도 사람,

인민대중을 떠나서 말할수 없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은 단순히 태여난 나라나 고향이 아니라 인민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라는 진리를 밝히시고 우리 인민의 참다운 조국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오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이며 사회주의조국은 오직 수령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수령의 품이라는 주체의 조국관을 확립하시였다.

조국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 관점으로부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을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어머니품으로 여기시였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조국에 이바지한것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어머니조국의 참다운 아들딸이라고 할수 없다는 투철한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를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인민관은 인민대중을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존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에 대한 최대의 믿음이고 존중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대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며 그렇기때문에 인민대중을 열렬히 숭배해야 한다는 투철한 견해와 관점에서부터 출발한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에서 말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은 그 열도에 있어서 가장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이라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적의미가 있다.

김정일애국주의에는 자기가 나서자란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열렬한 사랑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간주하시고 그 견지에서 애국의 진가도 평가하시고 모든것을 실천해나가시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그처럼 간고하고 시련에 찼던 고난의 시기에 선군의 길을 굴함없이 헤쳐나가시였던것이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사탕알도 변변히 먹일수 없지만 래일에는 내 조국땅우에 기어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을 펼치고야말리라는 가슴속 뜨거운 맹세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에서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모진 고난과 시련을 다 뚫고나가시였다.

그이의 천만고생으로 다져진 자위적국방력과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오늘 우리 민족의 운명발전에 거대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

으로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장정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다가 눈보라속을 달리던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거룩한 영상은 만사람의 심장속깊이에 자기를 바쳐 이 땅에 광명을 주는 태양과도 같이 영원히 잊을수 없는 애국자의 빛나는 귀감으로 뜨겁게 새겨져있다.

김정일애국주의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며 실천의 본보기이다.

위대한 장군님처럼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신의 가슴에 품어안고 자신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애국의 열정으로 한생의 끝까지 조국을 받들어야 한다는것이 **김정일**애국주의에 관통되여있는 애국의 호소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는것이다.

위인의 애국주의는 위대한 계승속에서만 그 진수가 밝혀지고 대를 이어 빛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와 민족의 요구와 의지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를 **김정일**애국주의로 명명하시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불씨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

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2012년 3월 몸소 삽을 드시고 조국의 대지우에 귀중한 나무모들을 한그루 또 한그루 심어가시며 천만의 심장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의 불씨를 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을 잊지 않고있다.

그날 일군들이 자신께서 심으실 나무의 구뎅이들을 미리 파놓고있는것을 보시고 그러면 내가 흉내만 내라는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한삽 또 한삽 구뎅이를 파시고 나무모에 정성껏 흙을 덮어주시며 오랜 시간을 바쳐 나무들을 심으시였다.

나라의 중대사를 돌보셔야 할 그이께서 어찌하여 하많은 시간을 바쳐, 땀을 바쳐 몸소 나무들을 심으시였던가.

그이께서는 결코 이 땅에 몇그루의 나무들만 심으신것이 아니였다.

그날 구슬땀을 흘리시며 나무모들을 심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향하여 참으로 하고싶으시였던 가장 귀중한 말씀을 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들고나갑시다!

새로운 각오를 안고 대번영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천만인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강령적인 말씀이였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국의 대지에 번영의 거

목을 자래울 새로운 애국정신은 이렇게 천만심장에 뿌리내리게 되였다.

그이께서 애국의 표대로 높이 추켜드신 **김정일**애국주의로 하여 이 나라 인민들의 심장의 피가 다시한번 정화되였고 천만의 지혜와 힘이 새롭게 만장약되게 되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를 정신적재부로 받아안은 이 나라의 인민들은 조국의 푸른 하늘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였고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되새기게 되였다. 이 땅에 오곡백과를 가꾸고 부흥번영의 대통로를 닦는데서 자기들의 근면한 노력과 지혜가 어떻게 발현되여야 하며 어머니조국의 품에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어떻게 자기를 순결하게 바쳐야 하는가를 가슴속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에 관통되여있는 애국의 이 신조는 그대로 천만인민모두를 최후승리를 향한 총진군대오로 힘있게 떠미는 정신적자양분이며 값높은 위훈과 생활의 라침판으로 되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은 절세위인의 한생이 어려있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을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마땅한 본분으로,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주하고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를 더하지도 덜지도 말고 실천활동에 그대로 구현해나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인민들이다.

사랑은 곧 힘이라는 말이 있다. 가장 열렬한 사랑과 헌신이 최강의 힘을 낳고 최대의 업적을 낳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적극 구현해나가기 위한 애국열풍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으며 부강조국건설의 전역에서 그 거대한 생활력은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새시대에 공화국의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기적적승리와 특대사변들을 수놓으며 강국의 래일을 앞당겨가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주체조선의 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군로를 열어나가게 하는 불패의 힘도 다름아닌 **김정일**애국주의이다.

흘러간 날과 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강대성을 과시하는 장쾌한 사변들로 수놓아질수 있은것은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김정일**애국주의가 고패쳤기때문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우주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겠다는 미더운

과학자들의 불같은 충실성이 12월의 강설우에서 위성발사성공의 기적을 낳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벌솜옷을 입으시고 국방력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신 사생결단의 자욱자욱이 국방과학전사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었기에 그 누구도 어쩔수 없는 막강한 국력을 보유한 무적의 군사강국의 오늘을 안아올수 있었다.

대고조전역에서 남들이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 최대로 발양되고 나라의 발전면모를 특징짓는 첨단돌파의 성과들과 시대적본보기들이 창조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정신이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분출된 결과이다.

초인간적인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주체공업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전반에서 질적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하루빨리 지식경제강국, 문명국으로 급부상함으로써 세계를 압도해나가려는 인민의 용기와 열의는 또 어떠한가.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정신력의 강자, 시대의 선구자가 되여 세상을 들었다놓는 영웅적장거들을 이룩하고있다.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문명의 새 거리들이 해마다 솟구쳐

오르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황홀한 건축물들이 일떠서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김정일**애국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 그토록 사랑하신 조국산천의 면모가 사회주의선경으로 천지개벽되고있는 현실은 또 어떠한가.

지금 공화국에서는 국토건설의 웅대한 목표밑에 온 나라가 떨쳐나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산림복구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나라의 산림이 줄어드는것이 가슴아프시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푸른 숲이 설레이는 아름다운 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 산림복구전투를 벌리는데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중시하신것이 바로 **김정일**애국주의이다.

애국주의는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며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꿀 때

자라나게 된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림복구전투에서 **김정일**애국주의가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산림복구전투는 사람들의 애국심을 검열하는 마당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인민들이 드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그이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민이 한사람같이 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2017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산림복구전투기간에만도 전국적으로 수십만정보의 면적에 많은 나무를 심었으며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특히 산림복구전투에서 병기창이나 같은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나무모생산능력이 비할바없이 확대되였다. 지난해에만도 모체양묘장들을 현대화하는데 힘을 넣어 수십개의 양묘장들을 새로 건설하고 개건하였으며 14억 5 0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해 7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주신 강원도양묘장은 년간 2 0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대규모의 나무모생산기지로서 강원도인민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일떠세운 고귀한 창조물이다.

지금 강원도양묘장을 본보기로 도들에서 표준화된 양묘장

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전국도처에서 끓어번지는 산림복구전투의 열기는 다름아닌 **김정일**애국주의에 열원을 두고있다. 그 뜨거운 열풍이 조국의 산들을 나날이 푸르게 하고있다.

푸른 숲으로 전변되여가고있는 산들마다에 어린 성실한 인간들의 고결한 애국의 땀방울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지 모른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고 말한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이다.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유익한 일을 찾아 자기를 바쳐가는 사람들의 애국의 발자취가 조국의 산야마다 찍혀져 있다.

지난 10여년동안 100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어온 구성시의 평범한 로동자인 구본길공민의 애국적소행이 잘 말해주고있다.

그는 산림부문의 일군도 산림감독원도 아닌 료양소의 로동자이다.

하지만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인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겨안은 그

였기에 그 어떤 보수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애국의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였다.

고난과 시련의 해를 맞고보내며 고향땅의 산이 황폐화된것이 가슴아프고 누구든지 조국의 산을 가꾸어야 한다는 자각으로 그는 자진하여 일을 맡아안았다. 단지 공민적자각으로 내디디였던 산림복구의 길에서 그가 겪은 고생과 그가 맛본 보람을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한두그루도 아닌 수천수만그루의 나무모구뎅이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깊이 파고 부식토를 가득 채워놓는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필요한 부식토와 거름원천을 찾아 산골짜기와 개바닥들을 메주 밟듯 하다나니 새로 신은 신발도 열흘이면 판이 나군 하였다. 나무모를 지고 산으로 오르다가 허기져 쓰러진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한다.

배를 곯는 자식들을 보며 쓰리고 아픈 마음을 애써 참으며 넓지 않은 집터밭에조차 곡식이 아니라 나무모를 옮겨심은 그 마음, 추운 겨울이면 어린나무들이 강추위와 폭설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발에 동상을 입으면서까지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산을 오르내리군 한 그 진정에 떠받들려 나무들은 한해가 다르게 푸른빛이 짙어갔고 마침내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되였다.

그것은 구본길공민이 100정보의 한치한치의 산림에 씨앗만이 아닌 순결한 애국의 량심과 헌신, 넋과 진정을 아낌없이

묻었기에 안아올수 있은 소중한 결실이였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여주신 그의 애국적소행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이 제2, 제3의 구본길이 되여 산림복구전투에서 공민적의무를 다해나가고있다.

이런 애국자들의 대오가 있어 조국의 면모가 나날이 달라지고 가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애국주의는 결코 추상적인것이 아니다. 거창한 대건설전투장이나 목숨을 내건 격전장에서만이 애국주의가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애국은 자기 집뜰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의 부모처자를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자기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잘 꾸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성실한 땀을 흘리고 자기 한몸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김정일**애국주의의 중요한 요구이다.

이것을 자각하고 그가 누구이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조국에 한가지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자신을 묵묵히 바쳐가는 참다운 인간들이 이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공화국에서 시대의 전형들로 내세우고있는 수많은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의 고결한 모습에도 참다운 애국의 넋이 뜨겁

게 비껴있다.

그들가운데는 자라나는 후대들의 가슴에 애국의 소중한 씨앗을 심어주며 한생을 빛내이는 교육자도 있고 거창한 건설의 대번영기를 받들어가는 수도건설자도 있다. 황금해의 새력사가 펼쳐지는 조국의 바다우에 보이지 않는 삶의 자욱을 새겨온 어로공도 있으며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광물증산으로 번영하는 조국을 받드는 미더운 광부도 있다.

하는 일은 다르고 지켜선 초소는 같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을 안고 조국과 숨결을 같이해온 수많은 애국자들과 그들이 발휘한 수많은 소행들에 대해 다 쓰려면 이 지면이 너무나 모자란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명백히 말할수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삼고 실천에 구현하고 있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 사회주의 우리 집, 우리 공화국은 그렇게 강하고 승승장구하는것이라는것을!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를 진두에 모시고 천만인민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를 삶과 투쟁의 귀감으로 삼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 자기들의 애국의 뜨거운 열정을 다 바쳐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힘이 있고 위대한 승리가 있는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 인민의 위대한 승리와 번영으로 자기 발전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아로새겨온 사회주의조선은 지난해 자기의 창건 70돐을 뜻깊고도 성대하게 경축하였다.

절세위인의 걸출한 령도따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 공화국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공화국창건 70돐은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대정치축전이였다.

새겨볼수록 민주조선의 하늘가에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퍼지던 때로부터 《조국찬가》의 노래가 메아리치는 오늘에 이르는 70성상의 장구한 로정에서 이 나라 인민들은 공화국과 운명을 같이하며 험로역경의 고비들을 꿋꿋이 넘고 헤쳐왔다.

그 력사의 장정에서 조선인민은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정의의 싸움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에서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해내며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나라로 일떠세웠다.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높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도 공화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이룩한것이며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고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제낀것도 이 나라의 공민들이였다.

더우기 강국건설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진 새시대에 절세위인들의 강국념원을 실현하려는 불타는 애국충정으로 온갖 시련과 도전을 맞받아나가며 분투함으로써 공화국인민들은 조선을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다.

불과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만민이 경탄하는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승리의 준령에 높이 올라 장구한 력사적로정과 더불어 당당한 존엄과 막강한 국력으로 그 이름 빛나는 공화국의 오늘을 통해 이 땅의 주인들이 가슴뿌듯이 새겨안은 자부가 있다.

그것은 현 세계에서 국가다운 진면모에 있어서나 그 양양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을 견줄만 한 나라는 없다는것, 한마디로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커다란 긍지인것이다.

70년의 위대한 력사를 자랑스럽게 총화한 지금 사회주의조선은 자기 발전의 중대한 력사적시기를 맞이하였다.

공화국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

도 믿음직하게 구축하였다. 이로부터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를 열어놓아야 할 력사적과제가 나섰다.

중대한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국가건설과 활동,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킬수 있는 강력한 기치를 들것을 요구하고있다.

세계가 공인하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면서도 인민들의 강용한 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투쟁의 기치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강국에로 줄기차게 비약해나가는 주체조선의 강화발전에 있어서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강용한 혁명적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투쟁의 기치는 바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

는 강렬한 의지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내용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다.

국가제일주의는 자신의 창조적지혜와 영웅적투쟁으로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놓은 인민만이 당당히 가질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이다. 공화국이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이룩한 괄목할 성과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다.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며 인민이 주인된 나라보다 더 위대한 국가는 없다. 우리 공화국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담보될뿐아니라 이민위천의 리념과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이 구현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가장 리상적인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일심일체를 이룬 나라라고 할수 있다. 지구상에 국가가 출현한이래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고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일심단결의 나라가 우리 공화국이다.

국가의 자주권을 견지하고 지속적발전을 도모하자면 자체의 든든한 밑천이 있어야 한다.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의 령도밑에 항시적인 전쟁위협과 봉쇄, 유혹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진군길을 굴함없이 열어가며 강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어놓았다. 이런것으로 하여 나라의 발전전망은 대단히 크며 오늘 우리 공화국은 거대한 국제적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지금 세계는 공화국의 눈부신 전변들에 대해서도 감탄하고있지만 강력한 국가정치체제가 편파없이 계승되고있는데 대하여 더 부러워하고있다. 그것은 계승성이 확고한 국가에 무한한 발전성과 창창한 전도가 있기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난문제로 되고있는 계승문제를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한것이야말로 주체조선의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이다.

철저한 인민성과 사상의 유일성, 확고한 자립성과 일관한 계승성은 우리 공화국의 고유한 특징이다. 세계가 알수 없는 사회주의조선의 막강한 국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부유함과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가장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없기때문이다.

현 세계에서 국가다운 진면모에 있어서나 그 양양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을 견줄만 한 나라는 없다. 이런것으로 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주관이나 추상이 아니라 타당

성과 생활적바탕을 가진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되며 공화국인민들이 국가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내용에서 중요한것은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라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것은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세우고 체면을 차리자는것이 아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도취되여 자화자찬하는것은 국가의 지속적발전을 저애하는 걸림돌이다. 력사는 한때 강국이라고 하던 나라들이 자만도취하여 태평가만 부르다가 망한 사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사실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중핵적인 과제를 해결하는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고귀한 전취물을 고수하고 계속 공고발전시켜 대대손손 빛내여나가는것은 그에 못지 않게 어려운 일이다. 특히 힘의 강약과 리기적목적에 따라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좌우되고 폭제와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국력강화는 국가존립과 발전의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기본취지는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에 맞게 더욱 분발하여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돌격전에 전민이 매진하자는데 있다.

부강조국건설의 주체, 직접적인 담당자는 인민대중이다. 나

라의 전반적국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전체 인민의 높은 자각과 의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있는 오늘의 시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것으로 간주되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다 바쳐가고있다.

지난해의 경우만 봐도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체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자립경제의 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과학교육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이룩한 성과에 자만할줄 모르고 올해에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소동에도 끄떡없이 자력갱생대진군포성을 더 높이 울려가고있는 인민들의 영용한 기상은 드높은 애국적자각과 강렬한 의지의 표현인것이다.

인민대중의 이러한 자각과 의지가 반영된것이 바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이다.

공화국에서 내세우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깔보고 배척하며 자국만을 위한 세계질서를 수립하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 극단한 민족리기주의와 인연이 없다.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자주적존엄과 리익뿐만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리익도 철저히

존중하는 국가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오늘의 력사적시기에 투쟁의 기치, 위력한 정치사상적무기로 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기초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지구상에 국가가 출현하여 장구한 세월 강국건설을 지향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없다. 하지만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강국건설념원은 공상으로만 남아있었다.

자주적이고 부강한 국가건설은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집단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수행해야 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위업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일체가 되여 천신만고를 이겨내며 세계가 공인하는 가장 리상적인 나라를 일떠세우자면 전민을 공감시키고 결집시킬수 있는 완벽한 지도사상이 있어야 하며 숭고한 애국정신이 세차게 나래쳐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는 공화국이 수세기를 도약하여 자주의 강국,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솟구쳐오를수 있게 한 원동력이며 끝없이 강성번영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의 하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나라마다 환경과 자연지리적조건, 발전수준과 잠재력은 각

이하다. 하지만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행로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다. 그것은 국가건설방식은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다는것이다. 아무리 강대함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국가의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자기 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그런 나라는 망국의 올가미를 스스로 쓰는것과 같다. 때문에 강력한 국가건설위업은 철저히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국가건설의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지도사상, 국가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공화국의 력사는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정치리념으로 삼고 자주의 불변궤도를 따라 굴함없이 전진해온 력사이다.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여왔으며 국가건설의 전 행정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남들이 경제만능주의를 내세울 때에도 정치사상적위력을 강국의 제일국력으로 삼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을 실현하였으며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놓은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조선이다.

사대와 교조로 얼룩지고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였던 조

선이 자주의 성새,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르게 된것은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지금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제할 소리도 못하고있다. 만일 공화국이 외세의 압력에 눌리워 자주적대가 없이 주체의 항로를 변경시켰더라면 자주강국의 존엄은 고사하고 이미 오래전에 세계무대에서 빛을 잃고말았을것이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오직 자기 힘, 자기식으로 살아나갈 때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남김없이 떨칠수 있다는것이 간고한 시련을 헤쳐오는 나날에 조선인민이 체득한 철리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인민의 심장속에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되고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더욱 억세여지고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불패의 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에서 중요한것은 **김정일**애국주의이다.

어느 나라나 국가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는데서 애국심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중요시하고있다. 그것은 강국건설위업이 력사의 온갖 도전과 만난시련을 강행돌파해나가야 하는 간고한 투쟁이기때문이다. 그 복잡성과 치렬성, 사회경제적변혁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 어렵고 방대한 이 대업은 인민들의 투쟁

열, 애국열에 떠받들려 전진해나갈 때 승승장구하게 된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따라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부강조국건설은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벌려온 가장 영광스러운 위업이였으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조건에서 장구한 기간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이룩하여온 가장 영웅적인 로정이였다. 빈터우에서 초행길을 헤치며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고 재더미만 남은 페허우에 기적의 천리마를 불러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떨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전체 인민이 강렬한 애국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투쟁하였기때문이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애국주의는 다름아닌 숭고한 조국관과 인민관, 후대관으로 일관된 **김정일**애국주의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활력을 부어주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인 **김정일**애국주의는 공화국의 인민들을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밝은 등대로,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으로 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에로 질풍노도쳐 나아가고있으며 이 땅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번영의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천하제일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위력한 보검이 마련되게 되였다.

천만인민의 심장을 위대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고동치게 하고 자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는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거대한 감화력과 견인력이 있다.

이 땅 그 어디서나 우리 제도, 우리 정권, 우리 생활이 제일이라는 신념이 맥박치고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갈 불같은 열정이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발동속에 전사회적으로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이에 맞는 국풍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열풍이 한층 높아지고있다.

국풍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서 관건적인 작용을 한다.

훌륭하고도 우수한 국풍이 차넘치는 나라는 자기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발전행로는 훌륭한 국풍이 창조되고 발양되여온 력사이다. 자주성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일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단결력이 강하고 화목하게 사는것과 같은 국풍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부강조국을 건설하여오는 과정에 형성된 조선의 고유하고도 우수한 국풍들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이러한 국풍들을 적극 살리고 강국건설의 높이에 맞는 새로운 국풍을 수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조국보위를 가장 성스러운 제일국사로 간주하는 전인민적인 애국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우수한 국풍들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인민들의 열의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최근에 신문과 방송, TV를 비롯한 각종 선전수단들과 사회적교양망들에서는 전사회적으로 국풍확립의 열기를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선전활동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국화인 목란꽃과 국수인 소나무, 국조인 참매, 국견인 풍산개를 비롯하여 국가상징들을 애호하는 사회적기풍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사시절 푸르고 억센것으로 하여 강

의한 민족적기상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사랑해온 소나무만 봐도 국수로 제정되고 소나무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해설선전되고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는것이 적극 장려되여 하나의 풍조로 되고있다. 평양의 거리마다에 보기에도 멋있는 소나무들이 수많이 심어져 이채로운 풍치를 펼쳐놓아 사람들에게 애국의 숭고한 넋을 북돋아주고있다.

강대국의 공민답게 존엄있고 당당하게 처신하는것을 습벽화하며 가시적인 성과에 도취되여 자화자찬하고 쓸데없는 틀을 차리는것과 같은 국가의 위상을 훼손시킬수 있는 요소들을 바로잡아나가고있다. 그리고 침체와 답보를 배격하고 끊임없이 새것에 도전하는 담대하고 진취적인 기풍이 날로 수립되여가고있어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위대한 자주사상과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을 지닌 공화국의 인민들이 다그쳐나가고있는 강국건설의 대진군은 그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야말로 공화국의 인민들의 정신력과 창조적열의를 비상히 분발승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을 하루빨리 빛나게 완성해나가는데서 위력한 정치사상적무기로 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천하제일강

국,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헌신분투해가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국력은 날로 더욱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참으로 **김정일**애국주의와 함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투쟁의 기치로,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삼고 천만인민의 애국적열의를 원동력으로 강국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신심드높이 열어나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식, 자력갱생이 제일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격적징표중의 하나가 바로 자존심이다.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존엄을 지키려는 마음인 자존심을 가리켜 누구는 생존의 일부라고도 하였다.

사람이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사람답게 살아가자면 자존심이 강해야 한다. 그래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것이나 같다고 한다.

민족이나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존심이 없으면 자주성은 물론 민족의 존엄자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할것없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영예와 존엄을 빛내여나가자면 민족을 이루는 매 성원들이 강한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자부심과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각오와 의지를 소유해야 하는것이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은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고 존엄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렇다면 강한 민족적자존심은 어디에서 발현되는것인가.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자기것이 제일이라는 자부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수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떠난 자존심은 한갖 허풍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조선인민은 그 누구보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자기것을 제일로 사랑하고 빛내이는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해온 인민이다.

제힘으로, 자기식으로 발전하여온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선인민이 걸어온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3년간의 가렬처절했던 전쟁, 제국주의자들과의 끊임없는 정치군사적대결, 피눈물의 언덕, 계속되는 자연재해, 경제적난관이 걸음마다 뒤따랐다. 그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길이였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이 길을 조선인민은 과연 무엇으로 끗끗이 이겨내며 걸어왔는가.

강한 민족적자존심이였다.

전후시기만 놓고봐도 그렇다.

본래 남보다 멀리 뒤떨어져있는데다가 전쟁으로 남은것이란 재더미밖에 없는 상태에서 복구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인민이다. 하지만 그때 남을 쳐다보면서 도움을 청한것이 아니라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정신, 절대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눌리우지 않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누구나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났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강위력한 불패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웠던것이다.

경제건설도 누구의 도움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족자존의 립장에서 우리 식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무한한 힘으로 단 14년만에 공업화의 실현이라는 기적을 창조하면서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놓았다.

어찌 그뿐인가.

지난 세기 90년대에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개혁, 개방의 역풍속에 사회주의붉은기가 맥없이 내리워질 때 조선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철의 신념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한길에서 한걸음도 탈선하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최악의 험로역경도 불굴의 신념과 의지와 함께 자

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용감히 이겨내였다.

형언할수 없는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고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며 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놀라운 기적창조는 조선인민의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우리 식대로,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세상이 보란듯이 강국의 꿈과 리상을 기어이 실현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조선인민의 강대성을 만방에 떨쳐가려는 공화국인민들의 민족적자존심은 더욱 승화되고있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력경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강자가 되지 않고서는 존엄과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해야 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힘의 강약과 리기적목적에 따라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좌우되고있는 첨예한 시기에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식으로 나라의 부흥발전을 이룩하려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남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에게 결코 뒤떨어져 살수 없으며 남들이 한걸음 걸을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달려나가며 세계가 보란듯이 비약해

나가려는것이 다름아닌 공화국인민들의 강한 자존심이고 드높은 애국열이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바로 이것이 주체이고 자주이고 자력갱생이며 여기에 조선의 존엄이 있고 긍지와 영예가 있는것이다.

하기에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우리 식의 강국건설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의 주인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불과 몇년사이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며 눈부신 변혁을 안아왔다.

뜻깊은 지난해에 뚜렷이 과시된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위상을 내외에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세계의 78개 나라와 16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에서 온 수백개의 대표단들이 참가하고 지난날 공화국을 적대적으로 대하던 나라들까지도 관계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급부상한 조선의 전략적지위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되였다.

세계를 들었다놓은 력사적인 북남수뇌회담과 조중수뇌회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통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였다. 오래동

안 존재하여온 불신과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 력사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면서 세계언론들은 무시할수 없는 정치군사강국으로서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조선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격찬하였다.

보다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는것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공화국의 억센 기상과 무한한 발전잠재력이 만천하에 과시되고있는것이다.

제재봉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적대세력들이 끈질기고 강도높은 경제제재로 조선인민을 굴복시키고 내부를 와해시켜보려고 공화국에 대한 봉쇄와 압살의 도수를 고조시켰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해놓았다.

굴지의 야금기지들에서 자체의 기술과 연료, 원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경제전반을 활성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경제실태에 대해 제 입맛대로 외곡하면서 그 무슨 《제재효과》에 대해 떠들었지만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도 불리한 기상조건을 이겨내며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이 전례없이 늘어나는 자랑찬 성과들이 창조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삼지연군꾸리기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거창한 건설대전이 벌어지고 도처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보란듯이 일떠섰다.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자력갱생의 위력도 과학교육의 튼튼한 기반에 토대하고있으며 나라의 지속적, 전망적발전도 과학교육의 수준에 달려있다.

지난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는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을 혁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년대계의 사업으로 내세워지고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가 제시되였다.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며 세계를 앞서나가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과 담력으로 첨단돌파전을 활발히 벌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산소―무연미분탄착화 및 연소안정화기술의 도입, 생물공학적방법에 의한 피타제의 대량생산기술확립과 같은 우리 식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교원대학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교육기관들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봉쇄책동에도 끄떡없이 세상에 보란듯이 경이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창출해나가는 나날에 전체 인민이 더욱 확신한것이 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여기에 강국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음을 진리로 다시금 새겨안은 인민들이다.

지금 날로 커가는 공화국의 위력앞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은 《북의 경제적발전방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며 우리 식대로 비약해가는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획책해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력갱생의 거대한 힘으로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려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흔들수 없는것이다.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식으로 새롭고 발전적인것을 창조하고 남의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철저히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번영의 꿈과 리

상을 실현하고 세계를 앞서나가는것이 조선의 자력갱생이다.

주체조선의 고유한 투쟁방식인 자력갱생이야말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이고 기적과 위훈을 낳는 만능의 열쇠이며 더없이 값비싼 재부이고 자원인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경제강국건설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해나가고있다. 무엇을 하나 건설하고 생산하여도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리익,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자력갱생의 투쟁기풍과 더불어 주체의 사회주의는 보다 활력있게 전진해나가고 있는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의 강한 민족적자존심은 자기의것을 제일로 여기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애국의 마음에서도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억대의 재부보다 귀중한것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자기의것이 없는 나라, 남의것으로 가득찬 부흥은 넋이 없는 생명체와 같다.

언제인가 사회주의기발이 내리워진 어느 한 나라에서 있은 국제적인 토론회장에서 자기를 찬양하는 주최국사람들에게 자본주의나라의 어느 한 억만장자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모든 경제체제는 사실상 당신들의것을 그대로 모방

한것이다. 우리의 모든 상사, 회사들에 걸려있는 구호는 바로 당신들이 사회주의시기에 내걸었던 구호들이다. …

이 웃지 못할 사실을 통해 남의 현란한 불빛에 시야가 흐려져 우월한 자기의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것은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를 여실히 알수 있다.

참다운 번영의 미래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것을 창조해내는 인민에게만 펼쳐지는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것을 가지고 우리의 멋이 나는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도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강국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애국은 세상을 뒤흔드는 우리의것, 누구도 만들어낼수 없는 우리의것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내는 창조에 있는것이다. 눈부신 창조야말로 어머니조국을 위해 바치는 최고의 애국으로 간주되고있다.

우리의것을 제일로!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속에서 경제부흥으로 강국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지금 이 부름은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더없이 귀중한것으로 천만의 가슴을 더 세차게 두드리고있다.

우리의것의 창조는 이 땅의 넋이고 번영에로 향한 불타는 지향이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무한한 힘의 분출로 되고있다. 이 부름과 함께 가는 곳마다에 조선의 문명을 떨치는 황홀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첨단제품들이 앞을 다투어 태여나고있다.

사실 고난의 시련속에서 소리없이 스며든 다른 나라 상품들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쓰리고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이 땅의 주인들은 반드시 우리의 힘, 자력갱생의 힘으로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의것을 꽝꽝 만들어내리라 마음을 다잡았다.

그 비장한 각오와 의지는 그대로 뜨겁고도 강렬한 애국열정이 되여 지난날의 아픈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참으로 가슴흐뭇한 현실을 펼쳐놓고있다.

최근 몇해사이에 세계적인것을 당당히 따라앞서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말할것도 없고 인민들의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헤아릴수 없이 많고많은 우리의것이 생겨나 사회주의만복의 향기를 가득히 해주고있다.

《금컵》, 《선흥》, 《삼일포》, 《릉라》, 《봄빛》 등 갖가지 아름다운 이름들을 뽐내며 매대들을 가득 채운 식료품들과 녀성들속에서 대인기를 모으고있는 《은하수》, 《봄향기》와 같은 질좋은 고급화장품들, 학생들이 애용하는 《소나무》책가방과 민들레학습장 그리고 《매봉산》, 《류원》과 같은 질좋은 신발들과 《아리랑》손전화기와 《푸른 하늘》,

《아침》과 같은 첨단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것이 인민들의 신용을 완전히 얻었고 세계적인 명상품으로 이름떨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류례없는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우리의것이 놀랄만큼 빨리, 수많이 늘어날뿐아니라 구획도 나날이 넓혀지고있으며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가 공기처럼 차흐르는 격동의 시대가 바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이다.

이 자랑찬 현실은 강한 자존심을 강국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삼으시고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며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펼쳐질수 있었다.

우리의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남의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 좋은 우리의것을 창조하자. …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향하시는 일터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시고 간곡히 깨우쳐주시였다.

눈을 틔워주고 힘을 폭발시켜 하루빨리 이 땅을 세계적인 우리의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려 그이께서 기울이신 남모르는 심혈과 로고, 바쳐오신 눈물겨운 헌신을 무엇으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정녕 시대를 진감하며 나날이 늘어나는 자랑스러운 모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애국의 심장에 뿌리를 둔 한없이 성스러운 열매들이며 그이의 숭고한 리상과 꿈이 쌓아

올린 시대의 기념비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들은 세상에 대고 떳떳이 자랑할만 한 자기의것을 만들어낼 애국의 불타는 일념으로 후더운 땀과 피타는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고있다.

그이의 뜻을 따라 인민들의 창조의 높이가 달라지고 전례없이 앙양된 투쟁본때, 창조열풍속에 그리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 좋은 우리의것들이 더 많이 태여나고있다.

우리의것으로 세계를 딛고 오르라!

위대한 조선의것으로 지구를 뒤흔들자!

이런 철석의 의지를 안고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훌륭한 우리의것 하나하나는 그대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조국을 수호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언제 한번 꺾인적 없는 인민의 정신, 그 어떤 고난앞에서도 추호도 동요한적이 없는것이 조선사람의 자존심이다.

세계가 조선의 류행을 따르게 하라. …

언제인가 류원신발공장에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뜻깊은 말씀은 조선인민의 자존심이 어떤 높이에 있어야 하는가를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그렇다.

조선의 창조물을 세계가 부러워하게 하고 조선의 류행을 따

르는것이 세상사람들의 희망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바로 조선인민의 배짱이고 자존심이다.

물론 자기의것을 사랑은 할수 있어도 그것을 창조하기는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앞서나가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고있는 이 세계에서 모든것이 풍족하고 조건이 좋아도 성취하기 어려운것이 바로 자기의것의 창조이다.

하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신심과 용기에 넘쳐 자기것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강국건설에 필요하고 인민에게 복을 주는 우리의것을 자기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시대적요구에 부응해나선 천만의 심장들에 끓어번지는것은 다름아닌 자력갱생의 정신이다.

자력갱생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일시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인 대응책이 결코 아니다.

지나온 력사가 증명해주는것처럼 자력갱생은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향, 발전방식으로 확정하고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일관하게 견지해나가는 불변의 정치로선이다.

자력갱생이 국책으로, 국풍으로 되고있는 여기에 공화국의 진모습이 있으며 자자손손 복락할 미래가 있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란 이 나라의 천만인민모두는 앞으로도 영원히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우리의것

을 끝없이 사랑하고 우리의것을 끝없이 창조하며 위대한 사회주의 우리 집, **김정은**원수님의 나라를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으로 빛내여나갈것이다.

나의 일터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고 있는 긍지가 있다.

나의 일터를 사랑합니다!

비록 직종과 직위는 달라도 모두가 자기 직업, 자기 일터에 대한 열렬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정력적으로 성실하게 일해나가는 참된 애국자대군이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지키고 빛내여가고있다.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며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에는 바로 자기 일터와 직업을 사랑하며 조국을 위해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하고있는 성실한 인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력력히 비껴있다.

공화국에서는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 진취적인 사업태도와 일욕심이 곧 애국주의의 발현으로 간주되고있다.

애국주의라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거대함과 숭고함을 먼

저 생각한다. 물론 조국은 개별적사람들의 감성적인식으로써는 그 위대함을 다 헤아릴수 없는 거대하고 숭고한 개념이다.

하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추상이 아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향토와 나라의 수많은 재부를 포함한 조국의 모든것에 대한 사랑이며 이것은 곧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온넋을 쏟아붓는 티없이 깨끗한 마음, 거기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는 진실하고 열렬한 사랑의 감정, 바로 이것이 애국주의인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가 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수 있다. 례하면 취미와 소질, 재능과 능력 등이 중요하게 기인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다름아닌 사랑의 감정 즉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애국심은 자기가 맡은 일에서 무한한 창조적열정을 분출시키고 자신을 깡그리 바치게 하는 성실성과 헌신성을 낳게 하는 원천이기때문이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기의 일터, 자기가 하는 일을 귀중히 여기며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조국앞에 부여된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어렵고 힘든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일본새, 로동생활기풍으

로 되고있다.

하다면 공화국에서 발현되고있는 이 열렬한 직업애, 로동에 대한 사랑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자리잡고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무슨 직업이나 다 가장 신성하고 보람찬 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이 놓여있다.

사실 사람들의 직업은 천태만상이며 직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다.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고상하고 고유한 풍모이라고 말할수 있다.

직업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 사랑의 감정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생산수단이 극소수 자본가들의 개인소유로 되여있고 어떤 일이든 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의 권세와 치부를 위한것이기때문이다.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없이 그날그날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있다. 한푼의 돈이라도 더 벌수 있다면 순간에 종전의 직업을 미련없이 버리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세태이다. 직업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리해타산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수 있는 실무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인간은 인간에게 승냥이》라는 반인륜적인 생존원리가 만연된 결과 비리성적인 《직업륜리》가 지배되고있다. 의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병에 걸리기를 바라고 주택업자는 더 많은 살림집들이 화재로 불타 없어지기를 바라며 변호사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직업륜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어떠한가.

공화국에서 직업은 보수나 명예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위한 사회적분공으로, 조국과 인민, 자기자신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으로 되고있다.

누구나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것으로 여기고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겨진 초소에서 성실히 일하고있다. 그것을 곧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응당한 량심으로, 의리로 여긴다.

공화국에서 모든 직업은 근로자들이 자기의 한생을 가장 값있게 빛내일수 있는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애착은 순수 감정상의 문제로만 볼수 없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것이 가장 값있고 아름다운 삶인가, 인생의 목표와 리상을 어떻게 세우고 실현해나가는가 하는 관점과 립장에 관한 문제이다.

직업의 귀천이 따로 없는 공화국에서 직업에 대한 긍지와 보람은 무슨 직종에서 일을 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영예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일터에 대한 사랑이 곧 자기가 일하며 생활하는 집단과 동지들에 대한 사랑, 자기 조국과 제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로 결합되여있다. 또한 자기의 창조물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값높은 보답이라는 고결한 사상감정으로 승화되여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더없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있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굶어죽어도 기계설비만은 베고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 일터를 지킨 불굴의 사회주의수호정신의 밑바탕에도 그리고 오늘처럼 시련이 겹쌓일수록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기가 사는 고장과 일터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견인불발의 정신력의 근저에도 다름아닌 이런 숭고한 사랑의 감정이 깔려있는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한 삶의 평가기준은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그가 사회와 집단에 필요한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가 하는데 있다.

아무리 남보다 직위가 높고 화려한 직업에서 일한다 해도, 재산이 많고 오래 살았다 해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기여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보람차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수 없는 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어렵고 힘든 부문, 직종에서 마른일, 궂은일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적극 내세워지고있으며 그들의 숨은 공로가 값높이 평가되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속에는 자기 직업을 남달리 사랑하고 맡은 사업에서 일자리를 푹푹 내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이는 사람들은 례외없이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사람들이다.

수십년세월 인적드문 산중에서 온 가족이 도로관리원이 되여 대를 이어 맡겨진 초소를 지켜가고있는 구봉령가족소대원들, 30여년세월 한무궤도전차에서 교대운전사로 일하면서 평범한 날에나 어려운 날에나 운행길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것으로 하여 《애국자부부》로 떠받들리우는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공훈자동차운전사들인 최홍기, 허명금부부…

《한생 걸어온 길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은 더욱 없구요. …나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고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흥이 나고 내가 하는 일이 더없이 중하게 느껴집니다.》

도시경영부문의 한직업에서 3대를 이어 일해오고있는 신의주물정화사업소 위생시설수리공 최정순녀성의 이 진정어린 고

백을 통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인민을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길에 삶의 보람을 찾고있는 참다운 애국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절감할수 있다.

근 40년을 온돌수리공으로 일해오고있는 장연군도시경영사업소 온돌수리공 안명숙녀성의 삶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가슴을 울려주는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싶은 소박한 꿈을 안고 한창나이 처녀시절에 군도시경영사업소에 일터를 정한 그였다.

인민들이 자그마한 생활상불편을 모르고 생활하도록 하는 사업에 자신을 바치는것을 공민으로서 응당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그 길에서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찾을 결심으로 그는 남자들도 저어하는 온돌수리공일을 자진하여 맡아안았다.

온돌수리공일은 헐치 않았다. 하루종일 묵직한 온돌장들을 붙안고 씨름질을 해야 했고 얼굴이며 온몸에 구들재를 들쓰기가 일쑤였다. 기능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해 자기 집의 성한 온돌까지 뜯었다 다시 놓기를 그 몇번…

그렇게 하루종일 일을 하고나면 그는 저녁밥도 잊고 노그라져 잠자리에 들군 하였다.

하지만 뜨뜻한 온돌방에서 기뻐할 주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아침이면 발걸음도 씩씩하게 출근길을 다그친 그였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은 인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

라고 생각했다. 주민들로부터 집에 불이 잘 든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뻤고 그럴수록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은 나날이 커만 갔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도 그는 한본새였다. 처녀시절에도,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가 되였을 때에도 변함이 없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우리 온돌수리공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인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그의 삶은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의 품속에서 값높이 내세워졌으며 만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였다.

자기 일터를 묵묵히 지켜가는 나날에 그는 공민으로서 값높은 영예를 다 지닐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시계표창도 받아안았으며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는 시대의 따뜻한 축복속에 국가적인 여러 대회들에도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수십년을 온돌수리공으로 일해오고있는 안명숙녀성에게 있어서 성실한 땀과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자랑도 남다르다.

하지만 사회주의제도가 아니였다면 어찌 그의 삶이 그토록 값높이 빛날수 있었으랴.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할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인민의 복무자로, 애국자로 존엄높고 복된 삶

을 누려가는것이 이 땅의 현실인것이다.

《숨지는 순간까지 나의 초소를 지키겠습니다.》

수도의 평범한 도로관리공녀성이 한 이 말속에는 순결한 량심으로 애국충정의 인생길을 꿋꿋이 가고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 그대로 어려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건전하고 활발해야 한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매 공민들이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정력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모든 일터가 약동하여야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오늘날 공화국이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굴함없이 전진해나갈수 있는데는 사람들모두가 자기 일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애착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고있기때문이다.

조국을 위해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일하고있는가, 이것이 자기 일터, 자기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민들스스로가 오늘날 자신에게 제기하는 물음으로 되고있다.

매 사람들이 지켜선 초소와 일터는 서로 다르지만 어느것이나 다 자신의 행복과 조국의 발전과 하나로 련결되여있다는것을 자각한 인민들이기에 시련과 난관은 의연히 겹쌓여있지만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는 애국의

의지를 지니고 최대의 마력을 내여 분투하고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일손을 놓거나 조건이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으며 조국의 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여긴다.

하다면 누구나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안고 애국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가는 이 땅의 자랑찬 현실은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사람들모두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도록 보살피고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손길이 뜨겁게 어려온다.

지금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임무로 된다고 하시며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이 땅 그 어디 가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새겨져있다.

송림땅의 철의 기지에 들려보면 장알박힌 로동자들의 험한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동무들은 용광로주인이자 곧 나라의 주인이며 나라를 떠받들고 나아가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용해공의 긍지와 영예를 더욱 뜨겁게 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오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면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천하게만 여겨오던 한 리발사에게 동무는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며 크나큰 영예를 안겨주시던 그이의 모습도 숭엄히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렇듯 다심한 손길아래 자기 직업, 자기 일터가 제일이라는 애착과 긍지를 소중히 새겨안은 인민들이였기에 강재 6만t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거창한 력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도 이룩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동에 대한 긍지와 보람은 무슨 직종에서 일을 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며 자신의 로동이 조국과 민족의 부강발전과 륭성번영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시며 인민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영예감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로동에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언제인가 함경북도에 새로 건설된 한 병원을 찾으시여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기술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사연이며 또 언제인가는 새로 건설된 락원군의 한 학

교를 찾으시여 모든 교원들은 직업적혁명가라는 높은 책임감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그처럼 모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이 나라 인민들이 자기가 맡은 초소들을 꿋꿋이 지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기적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긍지높은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이 땅우에 자기 일터를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의 기풍이 력력히 흐르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더욱 빛나게 실현하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할 때 조국도 부강해지고 자기 가정의 행복도 미래도 담보된다는것을 잘 알고 자기가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해나감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 가시여도 자기 일터를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나시면 제일로 기뻐하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손길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이고있는가.

지난해 12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국주의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였다.

애국주의는 특히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여야 한다.

조국앞에 특출한 위훈을 세운 사람도 애국자이지만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를 묵묵히 지키면서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도 애국자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이다. …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 사심없는 헌신에 바로 애국이 있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인민들모두가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지금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나날이 더욱 악랄해지고 그로 하여 애로와 난관도 그만큼 가중되고있다.

그러나 과학자, 지식인들,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무한한 애국적헌신성을 더 높이 발휘하여 자기가 맡은 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갈 일념에 넘쳐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겉모양이 소박하고 너무도 수수하다.

하지만 가슴속에 뜨거운 애국심을 지니고 자기 일터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바쳐가는 참된 인간,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수많은 별들이 눈부시게 반짝이면서 은하수를 형성하듯이 이런 아름다운 인간들이 지켜가고 빛내여가는 일터들이 있어 공화국은 그처럼 강하고 만방에 빛을 뿌리는것이다.

《나의 일터를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정신세계, 고결한 인생관이 차넘치는 사회주의 우리 집에서 울려나오는 애국의 메아리는 휘황한 래일을 불러오며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

3. 사회주의 우리 집을 빛내여가는 애국자들

사회주의강국건설, 그것은 사회주의 우리 집을 더 튼튼히, 더 빛나게 일떠세우는 성스럽고 보람찬 사업이다.

그 누가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억세고 든든한 사회주의 우리 집은 무엇으로 일떠서는가.

전체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이다. 성실한 노력의 땀이다.

자기 하나의 안일보다 조국의 부강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으로 대대손손 살아갈 삶의 보금자리를 빛내이는 길에 자신들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어 사회주의 우리 집이 그토록 빛나고있는 것이다.

조국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고 사회주의 우리 집이 든든해야 오늘의 삶도, 후손만대의 행복도 담보된다는 진리를 새겨안고 직업과 일터는 서로 달라도 제손으로, 자기의 피땀으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 보란듯이 꾸려나가는 애국자들의 세계를 펼쳐본다.

나라의 장한 맏아들

오늘날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긍지와 자부로 빛나는 승리의 서사시가 년년이 수놓아지고있다.

자랑찬 이 현실은 결코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편단심 령도자와 당만을 믿고 받들며 애국충정을 다 바쳐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하여 창조되는 자랑찬 결실이다.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력사를 써나가는 총진군대오의 맨 앞장에는 다름아닌 장하고 미더운 로동계급이 있다.

건국의 마치소리 높이 울리던 그때로부터 세기를 이어가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나라의 맏아들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다해온 조선로동계급이다.

강국건설의 위대한 새시대에 공화국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의 창조자들로, 조국과 인민이 끝없이 신뢰하고 존대하는 위훈의 주인공들로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

치고있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이 값높은 칭호에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받아안은 이 나라 로동계급의 최상의 영광과 긍지의 높이가 그대로 어려있다.

이 부름과 더불어 기적의 만리마를 타고 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남먼저 마중가는 영용한 인간들의 애국열기가 이 땅우에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조선로동계급은 나라의 맏아들로, 조국의 번영을 떠받드는 핵심의 강철대오로 자라났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한평생 사랑과 믿음, 열과 정으로 키우신 절세위인들의 어버이손길아래서 조선로동계급은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깨달았고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할줄 아는 참다운 인간들로, 부강조국건설의 핵심부대로서 값높은 성장의 년륜을 새겨왔다.

수령의 부름, 조국의 요구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단숨에 메우며 영웅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세기적인 기적들을 제힘으로 기어이 창조한 자력갱생의 본때…

이것이 조선로동계급의 불변의 본태이고 조국을 받들어올린 기적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며 키워주신 나라의 맏아들인 로동계

급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마음의 기둥으로, 강국건설의 핵심력량으로 굳게 믿으시고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을 다 주고계신다.

로동계급에 대한 절세위인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을 가슴뜨겁게 전해주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그 얼마나 많이 꽃펴났던가.

이 나라의 로동계급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건설의 핵심부대라는 최고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대오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로동계급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최상의 로동조건이 마련된 현대적인 공장들은 물론 희한한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도 일떠세워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동계급을 위해 바치신 헌신과 로고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로동계급을 한없이 존대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뜨겁게 헤아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경비행기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타보아야 한다시며 위험한 하늘길에도 오르시였다.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과 함께 앞으로 혁명을 더 잘해야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된다고 하시며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력사를 끝없이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

시다.

예로부터 아들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혀 내세우는것보다 더 큰 부모사랑은 그들을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는것이라고 하였다.

로동계급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한없는 사랑은 로동자들모두를 참된 애국자, 시대의 영웅들로 키워 삶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는 웅심깊은 친어버이의 사랑인것이다.

자기들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버이품속에서 미덥고 성실한 로동계급은 위대한 시대가 부여한 무거운 력사적사명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로동계급은 더욱 산악같이 일떠섰다.

우리는 강국건설의 핵심부대, 비약의 만리마속도를 창조해가는 대고조의 기수!

이것이 절세위인의 축복을 받아안은 이 나라의 미더운 맏아들들인 로동계급이 세상에 호호탕탕 터친 철석의 신념과 애국충정의 메아리였다.

자기들의 운명의 기둥으로 받드는 령도자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가장 신성한 애국충정으로 간주하는것은 조선로동계급의 첫째가는 기질이다.

적대세력들이 그 무슨 《유사시 조기대응》을 떠들며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있던 2013년 12월의 준엄한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무조건 실천하기 위해 사나운 날바다와 싸워 기어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고야만 8월25일수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의 영웅적위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시여 절절하게 당부하신 4 000t의 물고기잡이과제를 어떻게 해서나 기어이 수행하기 위해 이곳 로동계급은 총궐기해나섰다.

한몸이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어로작업을 벌려 지난 시기에는 한해에 1 000t밖에 잡지 못하던것을 불과 몇달동안에 4 000t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나라 천만심장마다에서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신념의 열기가 뜨겁게 분출하던 그때 동해의 어로공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똑똑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풍요한 가을과 같은 물고기대풍으로 더없는 기쁨을 드리고 고무를 드린 위대한 **김정은**시대 로동계급의 일편단심을 전하며 조국의 바다는 오늘도 잠들줄 모른다.

영웅적로동계급에게 있어서 령도자의 구상을 받들어 조국을 빛내이는 애국심은 곧 경제강국건설에서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해나가는데서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오늘의 새시대는 로동계급이 선봉이 되여 자력갱생의 무쇠

마치로 만복의 재부를 세상이 보란듯이 창조해내야 하는 대비약의 시대이다.

령도자의 부름앞에, 시대의 요구앞에 언제나 충직한 로동계급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거창한 작전들이 펼쳐질 때마다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해나갔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후하여 힘차게 벌어진 대건설전투의 나날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그 나날은 영웅적인 조선로동계급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힘이 총폭발할 때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준 나날이였다.

당 제7차대회를 로력적위훈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는 황철로동계급의 호소에 전국의 로동계급이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나섰다.

누구나 《동무는 어떤 로력적선물을 안고 어머니당대회를 맞이하였는가?》라는 물음앞에 떳떳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나게 아로새겼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70일전투가 전개되자 삽시에 대고조의 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불어쳤다.

굴지의 철생산기지들과 전력생산기지들은 물론 수천척 지하

막장과 심산유곡의 벌목지, 두줄기 은빛궤도와 날바다 어장에 가보아도 승리의 5월로 향한 대진군의 선봉에 선 로동계급의 기상이 나래쳤고 전례없는 기적적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여 세상을 놀래웠다.

황철의 로동계급들은 일최고생산기록을 200%이상까지 끌어올리며 주체철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여 우리 나라의 원료, 자재, 기술에 토대한 흑색야금공업의 부흥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탄부들은 하루평균 116%이상의 높은 증산기록을 세우고 무조건 수행함으로써 70일전투 1개월동안에 방대한 목표를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북창의 전력생산자들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섰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녀성로동계급도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높이 세운 일생산계획을 200～250%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설비들을 기한을 훨씬 앞당겨 생산보장함으로써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 영웅적투쟁기풍을 창조하는데서 특출한 모범을 발휘하였다.

이들의 위훈을 본받아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7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년간,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도 이 나날에 수많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당 제7차대회에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80HP뜨락또르를 비롯하여 115HP디젤기관을 리용한 5t급화물자동차, 성능높은 전기기관차 그리고 수산부문에서 무어낸 《황금해》계렬의 만능화된 고기배와 5 000t급무역짐배 등 현대적인 기계설비들 하나하나는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영웅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하려는 로동계급의 강렬한 애국열의가 낳은 고귀한 결실들이였다.

당대회를 기적적인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에서 영웅적로동계급은 애국충정과 백절불굴의 기개,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완강한 공격정신, 비상한 창조력과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력사적인 당대회를 빛나게 장식하는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미덥고 영용한 로동계급은 보다 큰 승리를 향해 또다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또다시 새로운 진격의 선두에 남먼저 떨쳐나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해나가는 첫 진군길에 나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공화국의 인민들의 강용한 기상이 힘차게 분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강국의 휘황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로동계급은 중첩되는 만난을 과감히 박차며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높이 세운 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해나갔다.

언제나 나라의 맏아들구실을 떳떳하게 해온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경우만 놓고봐도 하루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내달려 그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주체철생산을 몇배로 장성시키는 기적을 안아왔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으려는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력에 의해 공업부문에서 200일전투 총생산액목표를 넘쳐 수행하였으며 수천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초과완수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2년분, 3년분 계획완수자들, 만리마기수들이 수없이 배출되고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영웅적소행들이 무수히 발휘되였다.

참으로 놀라운 로력적위훈으로 수놓아진 긴장한 전투의 나날들에 힘있게 과시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과 투철한 투쟁기풍은 자기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

한 로동계급만이 무에서 유를 낳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영웅신화를 창조하며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불변의 법칙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자력갱생은 조선로동계급의 또 하나의 이름이고 애국의 기치, 필승의 표대이다.

조선로동계급이 대를 이어가며 넘겨주고 넘겨받는 바통이 바로 자력갱생이다.

공화국의 무한대한 잠재력, 그것은 결코 억대의 자원이나 자금이 아니다. 어제도 오늘도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것을 원치 않는 조선로동계급의 자존심이고 자력갱생의 정신력인것이다.

오늘날 자력갱생, 자급자족이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존엄높이 잘살게 하는 만복의 열쇠이고 만능의 힘인것이다.

하기에 영웅적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누구보다 철저히 가다듬고 열렬한 애국의 열과 정으로 자력갱생창조대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지난 몇해사이에만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로동계급들이 자력갱생의 무한한 위력으로 제재책동을 보기 좋게 쳐갈기며 통장훈을 부른 특기할 사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짓부시며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그때처럼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조선로동계급의 자존심을 걸고 자력으로 끝끝내 만들어낸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지하전동차제작을 위하여 그린 설계도면은 5천여매, 만들어낸 부속품만 해도 수천종에 10여만개! 그처럼 짧은 기간에 해낸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수자들은 그대로 자력갱생의 투사들만이 발휘할수 있는 정신력의 크기이다.

최고생산년도보다 수만t의 세멘트를 증산함으로써 뜻깊은 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하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은 또 어떠한가.

뜨거운 열을 내뿜는 소성로의 인입실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로의 정상가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뼈를 깎고 피를 바쳐서라도 나라의 맏아들답게 더 높은 세멘트생산성과로 강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상원로동계급의 애국의 열정은 마침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2017년 12월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진출식은 자력갱생의 위력한 힘으로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영웅적로동계급의 본때를 뚜렷이 과시한 생동한 화폭이였다. 수도의 거리거리를 누벼가는 뜨락또

르와 화물자동차들의 장쾌한 발동소리는 그대로 자력갱생을 보검으로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고의 목표를 내세우고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내고야마는 조선로동계급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의 힘찬 분출이였다.

남조선의 《련합뉴스》, 《뉴스1》을 비롯한 언론들은 《평양에서 뜨락또르, 화물차 수백대 동원 <자력갱생열병식>》, 《북 화물차진출식 진행, 경제제재 맞선 의지 과시》 등의 제목아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자력으로 만든 뜨락또르와 화물차를 동원하여 대규모진출식행사를 진행한것만 봐도 북의 자력갱생의지와 경제적력량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수 있다.》고 평하였다.

오늘날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여기서 중핵적인 문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이를 위한 투쟁에서도 역시 로동계급이 선봉적역할을 다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한 주체철생산토대를 확고히 다진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의 로력적위훈이다.

2018년 9월 26일부 《로동신문》에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건설투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가 실리였다.

상보를 통해 알수 있듯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김철의 로동계급은 주체화대상건설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을 총폭발시켜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대상건설을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대규모 철의 기지에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보란듯이 치솟아오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공사들이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세기를 이어 내려오던 콕스제철법에 종지부가 찍히고 금속공업의 자립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 거창한 변혁은 인민경제의 맏아들인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완성하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반드시 실천하려는 김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의 뜨거운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이 안아온 자랑찬 승리이다.

김철뿐아니라 황철과 강선을 비롯한 야금기지들의 로동계급들도 자력갱생의 투쟁정신과 창조기풍, 창조본때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철강재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들과 기계, 화학, 건설건재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도 마찬가

지이다.

물론 수많은 난관과 도전들이 경제건설의 진군길을 다그쳐 나가고있는 로동계급의 앞을 가로막아나서고있다.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으며 남의 도움이나 지원 같은것은 결코 바랄것이 못된다.

조성된 정세는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뿐이며 따라서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것을 보다 절실히 요구하였다.

하기에 지난 4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는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체 인민이 새로운 결의와 의지를 가다듬으며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더우기 전민총돌격전, 총결사전에 전국의 근로자들을 부르는 강원도인민들의 호소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영웅적로동계급은 또다시 애국의 피를 끓이며 남먼저 진격로에 들어섰다.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존엄높이 잘살게 하는 만복의 열쇠이고 만능의 힘이라는것을 뼈속깊이 새겨안은 로동계급이다.

그렇기때문에 공화국의 로동계급은 오늘의 정세하에서 자력갱생정신을 체질화한 신념의 강자,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야한다는 자각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자력갱생대진군에 총궐기, 총매진해나섰다.

강원도로동계급을 보라.

도의 에네르기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6개의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완공하며 련이어 새로운 발전소들을 더 건설하여 도의 발전능력을 끌어올릴것을 결의해나섰고 도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건구와 가구를 비롯한 질좋은 마감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할뿐아니라 온 나라에 소문을 낸 원산구두공장의 《매봉산》구두와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각종 식료품들처럼 가방공장, 강냉이가공공장, 기초식품공장 등 도의 크고작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을 특색있는 명상품, 명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전국의 로동계급도 이에 호응하여 산악같이 떨쳐나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조선로동계급의 자존심을 걸고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자력갱생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전진해나가고있다.

이런 장하고 미더운 영웅적로동계급이 나라의 맏아들구실을 떳떳이 해나가고있기에 사회주의 우리 집은 자력으로 더욱 부강해지고있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사회주의 우리 집,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고 빛내여가는 참다운 애국자들중에는 강국건설의 생명선인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해가고있는 미덥고 장한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있다.

오늘날 절세위인의 거룩한 손길아래 이 땅우에 과학기술중시의 빛나는 전성기가 펼쳐지고 강국건설의 강력한 핵심력량, 핵심부대로 당당하게 등장한 과학자대군의 긍지와 자부심은 남다른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에 용약 뛰여들어 첨단의 높은 봉우리들을 단숨에 점령해갈뿐아니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자력갱생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다하고있는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가리켜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운명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애국자중의 애국자부대라고 부르며 떠받들고있다.

과학의 열매는 과학자가 가꾸는 사색과 열정의 거목우에 열린다고 말할수 있다.

광활한 미지의 세계를 더듬어 굳게 닫긴 과학의 문도 끌끌내는 힘차게 열어제끼는 그 왕성한 탐구의 열정은 과연 어

디에서 솟는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

모든것이 리윤추구와 생존경쟁에 복종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명예나 명성 그리고 막대한 재부의 축적과 치부를 위해서 다시말하여 일개인의 리익추구가 궁극에 가서 과학탐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양분으로 하여 성장해온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과학탐구의 근본목적도 절대적가치도 다름아닌 나라와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있는것이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과학의 터전, 과학으로 복무해야 할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과학을 해도 오직 어머니조국, 사회주의품에서만 하겠다는것이 이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일먼저 말하게 되는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품어주고 내세워주는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조국에 무한히 성실한 참된 애국자들이라는것이다.

오늘 최악의 역경속에서 상상할수 없이 빠른 속도로 장성하는 공화국의 과학기술력을 두고 세계가 놀라고있다. 과학기술의 창조물을 단순히 재능의 산물로만 보는 관점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하여 리해하기 어려운것이다.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초인간적인 창조력의 근본바탕에는 자기들의 령도자를 받드는 순결한 충정의 한마음이 있다.

태양을 떠나 꽃의 만발함을 생각할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을 떠나 과학자의 존재와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심장의 고백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주체조선의 기둥을 떠받드는 강력한 력량으로 자라난 조선의 과학자들은 오늘 과학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속에 최상의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다.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거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이라고 하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전위부대, 전초부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값높이 평가해주시고 때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애로운 스승이 되시여 강국의 존엄을 떨치는 력사적인 사변들을 안아오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온 세상이 다 부럽도록 최대의 특전과 최상의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은정속에 이 땅우에는 금방석이라는 시

대어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전설같은 사랑의 화폭들이 무수히 펼쳐졌던가.

세인의 경탄을 불러일으키며 솟아난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그리고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를 비롯한 행복의 보금자리들이며 미래상점과 연풍과학자휴양소와 같은 현대적인 봉사기지들은 그대로 하늘의 별도 따다주는 심정으로 과학자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위대한 어버이,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원수님밖에 모른다는 하나의 신념, 열백번 다시 태여난다고 해도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만 과학연구를 한다는 투철한 각오와 의지는 새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핵을 이루고있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멀고도 힘겨운 과학탐구의 길에서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명심하고 모진 시련과 난관, 실패와 좌절앞에서도 굴할줄 모르고 오로지 신념과 의리를 지키는것을 최고의 존엄과 지성으로 간주하고있다.

자기의 지혜와 열정뿐아니라 지어 목숨을 바쳐서라도 령도자의 구상과 조국의 요구, 시대의 부름을 무조건 실현해내고야마는것은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제일성격이며 제일기질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들은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력사적

인 사변들을 안아올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불사조마냥 모진 난관과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며 온갖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 기어이 민족사에 특기할 경이적성과들을 다발적이고 련발적으로 안아왔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할 시대적요구앞에 남먼저 호응하여 온 나라에 주체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켰고 령도자가 인민들에게 안겨줄 현대적거리를 구상하면 세상에 없는 설계와 공법을 창조하여 희한한 현실을 펼쳐놓으며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진리가 절대적인것임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오늘 세계를 휩쓸고있는 치렬한 과학기술경쟁과 인재쟁탈전은 개인의 리익과 재부를 위해 두뇌를 파는 국적불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수없이 낳고있다. 바람부는데 따라 오락가락하는 풀대와 같이 변신하고있는 그들과는 판이하게 눈서리에 파묻혀도 푸름을 잃지 않는 억센 소나무의 절개로 령도자와 조국앞에 무한히 성실한 이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고결한 헌신의 밑바탕에는 바로 수령과 조국에 대한 절대불변의 믿음이 있는것이다.

이렇듯 투철하고 고상한 넋과 의지를 지닌 주체조선의 지식인들, 위력한 과학기술대오가 번영의 전성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기에 강국의 미래는 확고히 담보되는것이다.

현시기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비의 첨단돌파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강력한 전초부대로서

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최근 불과 몇년동안에 공화국은 년대와 세기를 비약하는 눈부신 속도로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도달하였다.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빛나는 승리에는 세계적인 실력을 지닌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공헌이 력력히 깃들어있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목표는 최첨단이며 그들의 투쟁방식은 끊임없이 세계에 도전하고 반드시 릉가하는것이다.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첨단과학기술의 핵심을 틀어쥐고 눈부시게 활용하고있는것은 그들이 도달한 창조력의 높이를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과학기술과 국력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을 련이어 성공적으로 만리창공에 쏴올린 위성과학자들과 맞다드는 세계적인 경쟁자들을 모두 누르고 단연 패권을 쥔 천연흑연제품개발자들을 비롯하여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만만한 야심을 품은 인재들이 세계를 향하여 과감하게 돌진하고있다. 랭철한 리성으로 세계를 직시하며 쉬임없이 실력의 탑을 쌓고 또 쌓고있기에 세계의 권위있는 과학기술잡지들에 조선과학자의 이름을 단 괄목할만 한 론문과 평론들이 실리고있으며 국제적인 과학기술협력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노는 쟁쟁한 실력가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조선의 첨단돌파력은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체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창조

력, 자력갱생의 돌파력이라는데 그 무한대한 종심이 있다.

전대미문의 봉쇄속에서도 더욱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 주체조선의 첨단과학기술성과들과 경험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행성을 무한히 진감시키고 있다.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들과 주체철용광로에 의한 주체철생산체계의 확립, 지하전동차와 륜전기재들, 현대건축예술의 정수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비롯하여 자본주의를 압도하며 날에 날마다 이룩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경이적인 성과들마다에 과학자, 기술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슬기가 번뜩이고있다.

민족자존의 정신력에 세계적인 과학기술력이 합쳐지면 하늘도 이긴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어 주체의 사회주의는 절대의 힘을 지니고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말이나 선언으로써가 아니라 과학기술로써 반드시 증명될것이다.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만복을 위해 결사분투하는 애국헌신의 대오이라는데 그 중요한 특질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그것의 창조와 리용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 심각한 리념문제가 있다. 황금중시인가, 인간중시인가 하는것이다. 오늘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과학기술은 인간과 그 생활전체를 질적으로 변혁시킬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고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커다란 위험성을 낳고있다. 날로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부익부, 빈익빈현상, 환경오염을 비롯한 온갖 사회악과 사회적난문제로부터 산생되는 각양각색의 폐단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과학기술의 기본사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리익실현에 복무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다운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해서만이 실현되게 된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신념화한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인것으로 하여 누구보다 문명하고 생활을 진지하게 대한다. 그러나 향유보다 창조를 삶의 목표로 내세우고 서슴없이 고뇌에 찬 사색과 탐구의 길에 한생을 바치면서도 그 열매

를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그들의 리상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있고 그들의 명예는 애국에 있으며 그들의 생명은 나라와 인민을 위한 헌신에 있다.

오늘 공화국에서 창조되는 특대사변들마다에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이 깃들지 않은것이란 없지만 거기에 그들의 이름은 따로 새겨져있지 않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에서 민족의 재사들이 기꺼이 무명영웅이 되여 한생을 고스란히 바쳤으며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돌파하는 길에서 자신들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다 바쳐가고있다.

산을 넘어도 높은 산을 넘어야 더 큰 보람이 있고 길을 가도 수렁길, 진펄길을 헤쳐가야 자욱이 더 뚜렷이 찍혀지는 법이다.

주체과학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어렵다고 하여 에돌지 않으며 시련이 크다고 하여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과학연구사업에서 한시간, 하루를 드티면 조국의 전진이 1년, 10년 떠지게 되며 한걸음의 양보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긴 그들이기때문이다.

애국과학자!

이 값높은 부름에 이 시대 과학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특출한 인간적풍모가 응축되여있다.

애국의 마음이란 한점의 티도 없는것이여서 그것을 지닌 과학자에게는 자그마한 사심도 없다. 그런 과학자는 한생 변함없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렵고 간고한 과학탐구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법이며 필요하다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고 다음 세대의 과학연구에 한생의 피타는 노력이 깃든 연구자료를 밑거름으로 아무런 후회없이 고이기도 한다.

그렇듯 보석같은 량심과 지조, 애국심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누가 알아주건말건 과학탐구의 길에서 희생적인 헌신성, 불같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국과학자로 온 나라가 다 아는 과학자의 전형,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과학자들이 발휘한 애국헌신의 고귀한 정신세계는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길을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꿋꿋이 걸어 끝끝내 우리 식의 생물농약을 연구완성하였으며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놓은 그들의 과학적성과는 결코 고심참담한 노력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였다.

평양생물기술연구원 부원장 로력영웅 박사 최승복, 생물기술연구소 소장 박사 림명성, 생물제품공장 지배인 김정선, 책

임기사 김춘성과 같은 참된 인간들의 애국적신념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사실 기계의 발명처럼 그 결과가 눈에 크게 띄는 일도 아닌 생물학분야, 그것도 전혀 눈으로 볼수 없는 미생물의 세계에 대한 개척은 말그대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끝까지 파헤치는 완강한 신념의 강자들에게 비밀의 문을 열어준다. 종균준비로부터 종자배양, 발효배양과정에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숱한 원료와 자재, 로력이 순간에 몽땅 허사로 되고마는, 그나마도 수백시간동안의 공정을 거쳐야 농약원료가 들어있는 배양액을 얻을수 있다는 이 첨단생물농약의 생산기술은 몇개 나라의 독점물처럼 되여있었던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물농약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은 형언할수 없는 난관과 시련의 련속이였고 과학자의 참된 신념을 검증하는 과정이였다. 한두해 세월이 흐르고 백수십번이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자 연구사업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이 과제를 책임지였던 당사자들은 《오염박사》라고까지 불리우게 되였다.

연구사업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커갔지만 당시 책임자였던 최승복은 《박사도 아닌 우리가 비록 오늘은 〈오염박사〉라는 말까지 듣고있지만 량심에만은 티 한점 남기지 말자요. 허리띠를 졸라매며 우릴 공부시켜준 나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물농약을 꼭 성공시키자요.》

신념은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핵이다. 과학에 대한 성실성이나 학문에 대한 애착심만으로는 끝까지 갈수 없는 과학탐구의 길, 그 길에서의 성공도 신념이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환경도 다르고 세대도 각이하였지만 자기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손길, 성공을 바라는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무조건 보답해야 한다는 신념이 투철하였기에 연구집단은 모진 난관과 시련의 기나긴 나날들을 꿋꿋이 이겨내였다.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이 첫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멀리 출장길에서 《수고했다.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할수 없었던 최승복부원장,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생물농약생산공정을 기어이 성공시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등을 떠밀어주던 아버지, 어머니의 마지막모습을 뒤에 남기고 결단코 공장으로 다시 달려나온 김정선과 김춘성.

사심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였기에 연구사업을 계속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였을 때에도 한치의 양보나 변심을 모르고 억척같이 일어나 과학적신념을 지켜냈고 마침내 첨단생물농약의 공업적인 생산기술을 끝끝내 확립하는 그날을 맞이하고야말았다.

세상사람들은 자기의 과학적신념을 지켜 뚜렷한 공적을 남긴 유명무명의 과학자들에 대해 많이 알고있다.

하지만 자기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품, 사회주의 조국이라는 더없이 귀중하고 위대한 그 품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는 이 나라의 참된 애국과학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신 그날 첨단수준의 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한 연구원의 과학자들은 애국과학자들이라고,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된 과학자가 되려는 일념을 안고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과학자들을 업어주고싶다고 하시며 생물농약연구개발과 생산의 공업화실현에 적극 기여한 공로있는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10월 10일 경축행사에 특별손님으로 초대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을 가슴뜨겁게 새겨보군 한다.

애국과학자!

그 어떤 칭호에 비할수 없는 이 성스러운 부름은 세상에서 우리 과학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위해주시고 존경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안겨주실수 있는 최상최대의 칭호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는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 변심없는 신념과 애국의 의지를 지닌 과학자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인생의 값높은 표창이다.

어찌 이들만이겠는가.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여 온 나라에 널리 소

개된 과학자, 기술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연구소의 연구사나 자그마한 공장의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애국의 신념을 소중히 새겨안고 조국번영의 길에 성실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8년 4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당과 혁명을 옹위하고 우리의 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전선이 제일척후전선이라면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주력군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최상의 믿음으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대진군의 맨 앞장에 자신들을 내세워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지금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한사람같이 분발해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에 주체과학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고 애국과학자의 높은 긍지와 영예가 있음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직한 과학자대군이 있기에 전진도상에 뚫지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공화국은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영웅청년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여

약동하는 젊음이 하늘에 닿고 넘치는 힘과 기상으로 용기백배 비약하는 주체조선을 상징하는 진군대오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나라의 자랑인 영웅청년대군이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고 단결되고 열정에 넘친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에 의해 사회가 청년판으로 들끓는 나라, 그것으로 하여 국가의 전도가 끝없이 밝고 양양한것이 바로 조선의 참모습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청춘을 불러 정의와 진리의 상징이라고 한다. 청춘을 사나운 폭풍도 헤가르는 용맹의 나래라고 노래한다.

사랑과 열정, 용감성과 패기가 피끓는 가슴에 넘치며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왕성한 힘으로 천리 날바다도 단숨에

메우고 아득한 산도 통채로 떠옮기는 무서운것 없는 시절이 다름아닌 청춘이다.

바로 이런 젊음의 약동, 쉬임없이 솟구치는 거세찬 활력이 오늘 사회주의 우리 집을 떠받들고 부강번영의 래일을 앞당겨오고있다.

청춘의 무궁무진한 힘이 조국의 힘이 되고 청춘의 원대한 희망이 그대로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가 되며 청춘의 피끓는 열정이 곧 비약하는 조국의 젊음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강국의 눈부신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피끓는 청춘을 아낌없이 다 바쳐 어머니조국을 받들어온 전세대들의 고귀한 애국정신과 투쟁기풍을 곳곳이 이어서 오늘의 새시대 청춘들은 비상히 높아진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자기 세대의 본분을 훌륭히 다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보다 진공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벅찬 시기에 조국은 젊은 힘이 넘쳐나는 자기의 장한 아들딸들이 조국보위와 강국건설대전에서 조선청년의 용감성과 단결력, 전투력을 더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였다.

더우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새시대가 펼쳐진 2012년에 청년절을 계기로 청년절경축대회가 성대히 열리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을 받아안게 된 500만 청년전위들은 한없는

긍지와 영예, 사명감으로 가슴끓이였다.

우리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값높은 믿음과 축복은 그대로 청년전위들을 영웅적위훈의 창조에로 떠밀어주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척후대의 기본사명은 가장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 질풍같은 속도로 대오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는 수백만 청년들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막강한것이다.

조국의 부름앞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것은 이 나라 청춘들의 제일가는 기질이다. 지금 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는 조선청년들의 이 기질이 그 어느때보다 드높이 발휘되고있다.

피끓는 청춘시절에는 창공에 치솟는 포부와 리상을 지니고 세상이 좁다하게 일판을 벌리며 단숨에 산악도 떠옮기고 날바다도 메우면서 시대를 뒤흔드는 멋이 있어야 한다.

시대를 진감하는 영웅청년들의 값높은 위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있다.

그것은 조국의 북변 백암땅에 거연히 솟아있는 청춘대기념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이다.

해발 1 000m를 헤아리는 무인산중, 한해치고 겨우 3～4개월밖에 솜옷을 벗을수 없다는 혹한속의 고산지대, 산이 너

무 험해 한줄기 오솔길마저 끊겼던 여기 협산계곡을 가로지르고 청년언제가 마침내 솟아올랐다.

돌이켜보면 백두대지에 대동력기지를 일떠세우는 거창한 사업을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두해도 아닌 오랜 나날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함마와 정대로 천연암반을 까내고 산을 들어내면서 언제를 쌓고 물길굴을 한치한치 열어나간 청년돌격대원들의 로력적위훈을 그 어떤 글과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얼어붙으면 썰매전, 발구전으로 수송로를 열어나간 돌격대원들과 서두수의 차디찬 물속에 뛰여들어 온몸이 《얼음기둥》이 되여 레루를 떠받든 결사대원들을 비롯하여 발전소건설을 위해 바쳐온 청년들의 무한한 희생성, 애국심앞에서는 누구나 다 머리가 숙어진다.

2012년 4월 19일.

발전소청년돌격대원들은 이날을 자기들의 돌격대가 두번다시 태여난 날로 간주하고있다. 력사의 이날과 더불어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인 500만 청년대군에서 가장 정예로운 근위부대가 태여난것으로 력사에 길이 빛나게 되였다.

그날 이곳 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청춘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발전소공사를 무조건 끝낼데 대한 과업

을 주시였다.

발전소언제를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며 청년들이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단단히 마음먹고 중시하는 발전소건설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였다는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잘 알려줄데 대하여 일군들에게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조국의 기대에 청년들은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는 결사의 각오와 배짱으로 산악같이 일떠나섰다.

삽시에 발전소건설장은 말그대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장으로 화해버렸다.

수천명의 청년들이 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해왔고 온 나라의 관심과 성의가 여기로 쏠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때로부터 불과 두달동안에 7만 4 000㎥이상에 달하는 언제콩크리트타입이 진행되는가 하면 그처럼 거대한 언제가 20m나마 껑충 뛰여오르는 기적이 일어났다.

전투의 순간순간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이였다.

어느 한 도의 돌격대원들은 련속타입을 받아들여 주간타입 실적을 종전의 2배로 올리였고 수십kg의 마대를 메고 경사급한 발판을 오르내리면서 1인당 평균 3t의 골재를 운반하는

놀라운 실적을 내기도 하였다.

불과 석달 남짓한 기간에 평균주행거리 2만㎞이상, 최고 2만 5 000㎞ 돌파하며 물동수송전투에서 위훈을 떨친 운수대대의 운전사들.

참으로 백두청춘들의 힘이 어떤것인가를 실물로 보여주는 기적들이 매일 매 시각 태여났으며 마침내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끼고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가 청춘대기념비로 일떠서는 놀라운 전변의 기적이 일어나 세인을 경탄시키였다.

기적우에 신화가 있다. 불가능을 이긴것을 기적이라 한다면 인간이 해낼수 없는 일을 두고 신화라고 한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제기일에 무조건 관철해냄으로써 우리 나라 발전소건설력사에, 아니 조국청사에 특기할 백두산의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던것이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기적의 진리를 령도자의 믿음이면 조선청년들은 지구도 든다는 신화로 증명하였던것이다.

《믿음이 어떤 기적을 낳고 신념이 어떤 신화를 창조하는가를 빨찌산회상기로만 학습하던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라고 절절히 말하던 평범한 돌격대지휘관의 말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지난 세기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에서는 북방의 처녀지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굴지의 수력발전소를 일떠세운 공청원

들의 위훈을 《용감성》이라는 유명한 장편소설에 담아 력사에 남겼다.

허나 백두산기슭에서 발휘된 영웅청년신화는 그러한 용감성을 초월하여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운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고귀한 피와 땀의 결정체인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이 쌓아올린 언제이기에 그 높이를 결코 측정단위로 잴수 없다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애국충정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존엄의 높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의미가 다 담겨져있는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자기의 본분을 다한 자기들을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로, 시대정신의 전형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백두영웅청춘들은 또다시 신들메를 든든히 하고 용약 떨쳐나섰다.

다음해 청년절까지 3호발전소건설을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은 청년돌격대원들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히 새로운 전구를 차지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이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최악의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대자연개조전투였지만 3호발전소건설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더욱 어렵고 힘든 전투였다.

하지만 그 어떤 자연의 광풍도 백두청춘들의 담력과 배짱을 꺾을수 없었고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도 신념과 의지의 강자, 창조의 거인들의 의지를 굽힐수 없었다.

그들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로 마련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구호가 위훈의 기치로 힘차게 나붓기고 천험의 산발을 휘여잡는 대격전이 펼쳐졌다.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하여 기계수단을 리용할수 없는 외진 산중에서 함마전으로 천연암반을 까내고 산을 들어내며 기동로를 개척하고 무릎까지 빠지는 차디찬 감탕물속에서 타입전투를 진행한 돌격대원들의 공격전으로 하여 건설장은 백열전이 벌어지는 준엄한 전구를 방불케 하였다.

백두청춘들의 견인불발의 투쟁은 석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수력발전소언제를 일떠세우는 영웅청년신화를 다시금 탄생시켰다.

세상에 자랑높은 사회주의강국의 주인공, 청년전위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애국충정에 떠받들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은 드디여 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였고 백두전역에는 단 1년동안에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 3호발전소가 웅건장중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백두청춘대학》으로 자랑높은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자기

령도자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자기 조국을 위해 무한히 헌신적인 조선청년들의 참모습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이것은 몇십, 몇백만kW의 전기를 얻는것에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성과이며 승리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조선청년들의 무한대한 힘과 슬기가 총폭발되고 시대를 대표하는 청년돌격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였다.

오늘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무슨 일을 하건 백두전구에 자신들을 세워놓고 백배의 힘을 가다듬으며 삶의 순간순간을 백옥같은 애국충정과 고상한 미풍, 위훈창조로 빛내이고있는 것이 공화국의 청년들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도 다름아닌 청년들이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청년들모두가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과학기술강국과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선봉에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인공지구위성을 단숨에 쏘아올리고 국력강화의 력사적사변을 련이어 안아온 청년과학자들도,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며 폭풍쳐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들도 피끓는 청춘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영웅청년들인것이다.

최근년간 청년들속에서 수많은 로력영웅,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가 배출되고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진출한 미더운 청춘들이 비약과 혁신의 창조자로 위훈떨치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2016년에만도 청년들이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바쳐 수많은 《청년호》기관차, 고기배 등을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만 해도 청년명칭이 새겨진 설비, 기대들은 수만여대에 달한다.

지금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는것도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애국적이며 영웅적인 청년들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의 청년들은 전투적이고 락천적이며 고상한 청년문화와 도덕을 창조해나가는데서도 척후대의 사명을 다해나가고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퇴페적인 부르죠아문화와 생활방식의 만연으로 청년들이 부패타락하고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여 심각한 사회정치적난문제로 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의 청년들은 사회주의문화와 도덕을 창조하는데서도 시대의 선도자의 역할을 당당히 하고있다.

번지르르한 남의것이 아니라 고상한 우리의것을 꽃피우는

건전한 문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투쟁의 노래높이 활기에 넘쳐 전진해나가는 전투적인 문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생활을 알뜰하고 깐지게, 문명하게 해나가는 사회주의생활문화의 전형을 창조해나가는 름름한 청년들이 있어 문명국건설이 그토록 힘있게 추진되고있는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수도 평양을 떠나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과 사회주의협동벌, 수산부문과 새로운 개발지들에 달려나가고 외진 산골과 섬마을의 교단에도 찾아가는 집단주의정신의 체현자들도 다름아닌 청년전위들이다.

꽃나이처녀시절을 바쳐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강선땅의 《처녀어머니》와 같은 청년미풍선구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어 화목한 사회주의 우리 집에는 미덕의 향기가 넘쳐흐르고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날마다 꽃펴나고있다.

강국의 주인공들답게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들마다에서 조선의 체육신화, 금메달열풍을 련이어 일으키며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청년체육인들의 그 애국의 피땀은 또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중한것인지 모른다.

바로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고, 우리 혁명이 침체와 답보를 모

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때문이라고 그처럼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후손만대가 자랑하고 영원히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를 영웅이라고 부른다.

그럴진대 피가 한동이씩 끓어넘치는 열혈의 청년들이, 그것도 한두명이 아니라 청년들 누구나가 영웅으로 시대의 각광을 받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 우리 집의 자랑스러운 면모이고 조선청년들이 지닌 가장 값높은 칭호, 최상의 영예이다.

자기의 삶을 조국의 부름과 하나로 이으며 사는 사람, 언제나 키워준 조국의 품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삶이 그대로 애국이고 영웅임을 바로 공화국의 청년들이 실천으로 증명해보이고있다.

영웅이라는 값높은 부름으로 긍지높은 이 나라 청춘들의 더없는 행복과 영예를 격조높이 구가한 노래 《청춘송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언제나 애국에 불타 우리 이름 청춘이여라
열정의 우리 당을 닮아 피끓어라 청춘이여

《우리 당을 닮아》, 이 말속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있다.

조선청년들이 무엇으로 하여 그렇듯 불타는 희망에 넘치고 심장마다에 애국의 열정이 피끓어오르는것이며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강의하고 용맹하며 신념의 별무리로 빛발치는가에 가장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닮은 청춘!

바로 이것이 새시대 청년들의 삶과 의지의 총체이다. 그 어떤 강요로도 이룰수 없는 심장의 결론과도 같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성장하는 나날에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고 그이를 닮아야만 참다운 애국자로서 청춘을 값높이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온넋으로 절감한 조선청년들이기때문이다.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고 그 모습은 제나름대로이지만 령도자를 닮은 청춘은 오직 하나 조선청년들밖에 없다.

언제인가 서방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이런 글이 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라는 부름외에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부름이 있다. 기나긴 인류력사에 청년강국이라는 말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 아름

다운 도덕기풍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조선이야말로 끝없이 밝은 미래를 가진 청춘의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지금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총진군대오의 맨 앞장에서 나아가는 영웅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지축을 울리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조선의 영웅청년들의 새로운 력사의 출발선으로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을 모신 청년동맹의 500만 청년전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온 나라가 청년판으로 들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뿌리가 든든하고 가지가 왕성하며 줄기차게 뻗어오르는 거목은 그 무성한 새 순과 함께 더욱 억세게 성장하기마련이다.

사회주의조선도 바로 이런 거목과 같다.

절세위인의 손길따라 미래로 내달리는 천군만마들인 슬기롭고 영용한 영웅청년대군이 있어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한것이다.

사랑없인 못사는 마음

나라의 꽃, 가정의 꽃, 생활의 꽃, 이것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당당히 떠밀고나가는 공화국의 녀성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안겨준 값높은 부름이다.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에 억센 삶의 뿌리를 내리고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를 한껏 풍기고있는 공화국의 녀성들.

시대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언제나 자각한 이들이기에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순결한 사랑과 다심한 정으로,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가정과 사회에 기쁨을 더해주고 조국을 받들어가는 녀성들의 애국의 의지와 열의는 나날이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이 땅우에 녀성들을 아끼고 내세워주는 녀성중시의 정치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과 정으로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태양의 축복으로 녀성들의 존엄과 긍지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2012년의 3월 8일 국제부녀절날에 펼쳐졌

던 감동의 화폭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아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응어리져있던 그때 국제부녀절을 성대히 기념하는 뜻깊은 음악회를 마련해주시고 공연도 함께 관람하시며 온 나라 녀성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며 이 나라의 모든 녀성들, 아니 사람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받들어 이 땅우에 녀성중시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감격의 그날과 더불어 조선녀성들의 존엄과 긍지는 하늘에 닿았고 영광과 행복은 끝없이 나래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맏며느리로 내세워주고 아껴주신 군인가족들의 경우만 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속에 어떤 값높은 부름을 받아안았던가.

몇해전 12월 어느날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무대에 오르시여 대회참가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의 안해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우리 후대들의 다심한 어머니, 총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작식대원들이라고 값높이 불러주시였다.

동지들과 같은 강인하고 위대한 녀성혁명대군을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누가 보건말건 말없이 남편들의 뒤바라지를 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동지들이 흘리고있는 순결한 량심의 땀방울들은 혁명의 피방울인양 우리 혁명의 맥동을 더해주며 더 윤택한 앞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게 하고있다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의 전우들이자 동지들의 남편들, 자식들인 우리 인민군대의 생활을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며느리들인 동지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참가자들모두는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참으로 그날의 감동적인 화폭은 대회참가자들만이 아니라 전군의 군인가족들, 온 나라 녀성들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한 력사적인 화폭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을 명심하고 군인가족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다해나가고있다.

그들뿐만이 아니다.

녀성과학자, 녀성교육자, 녀성예술인, 녀성체육인을 비롯한 이 땅의 녀성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과 끝없는 영광을 누리고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공화국의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남

김없이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칠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조선녀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영광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일편단심 그이만을 받들어가는 깨끗한 충정심으로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꽃피워가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떠받드는 뿌리가 되자, 이것이 조선녀성들이 지닌 고결한 인생관이다.

조국은 누구에게나 귀중하지만 녀성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예로부터 녀성의 인생은 가정과 자식을 위한것이라고 일러왔다. 자식을 위해 바친 생만이 후회를 모른다는 말속에는 세기를 두고 굳어진 녀성고유의 인생관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러나 조국이 있고야 녀성의 존엄도 있고 모성의 권리도 있으며 자기자신과 가정, 자식들의 운명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누구보다 뼈에 깊이 새긴 사람들이 바로 조선녀성들이다.

자기들의 지위와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마련해주는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하나로 잇고 사는 조선녀성들의 애국의 열도는 그 무엇으로써도 잴수 없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비약으로 전진해가는 강국건설의

그 어느 전구에 가보아도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녀성들의 장한 모습을 볼수 있다.

인생의 귀중한 처녀시절을 조국보위의 초소에서 빛내이는 녀성군인들, 산골학교, 분교들에서 배움의 종소리를 높이 울려가는 녀성교육자들, 첨단돌파의 고심어린 길을 걷고 또 걷는 녀성과학자들,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녀성로력혁신자들, 대고조격전장들에서 위훈떨쳐가는 녀맹돌격대원들…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애국충정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녀성들이 다 그러하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날에 날마다 놀라운 혁신적성과를 창조해나가고있는 녀성근로자들의 긍지와 자랑은 남다르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부문의 녀성근로자들을 놓고봐도 그렇다.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가고있는 녀성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각지의 경공업기지들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은 경공업제품들이 생산되여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신의주방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선흥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공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경공업생산기지들에서는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낸 영예의 녀성로력혁신자대렬이 해마

다 늘어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렸던 2016년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10월 10일까지 5년분, 4년분, 3년분, 2년분 계획완수자 수십명을 비롯하여 670여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다는 한가지 사실을 놓고서도 만리마를 타고 내달리는 녀성근로자들의 애국적인 투쟁열의를 여실히 알수 있다.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것으로 하여 전형단위로 전국에 소문이 자자한 단위들에 가면 반드시 누구나가 자랑하는 녀성들이 있다.

북방의 금골에 가도, 굴지의 야금기지인 황철, 강원땅의 심심산골 발전소건설장에 가봐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으로 만난을 헤쳐나가는 녀맹돌격대원들의 애국적소행들이 가슴뜨겁게 새겨져있다.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가 있는 상원땅에 가면 그곳 사람들이 자랑하는 성실한 녀성들이 있다.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한 상원의 로동계급으로 말하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원대한 강국건설위업을 받들어가는 전초병이 되라는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사람들이다.

그런 남편들앞에, 자식들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일념으로 상원땅의 녀성들은 자기들도 강국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세멘트생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주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해마다 2 500여t의 버력탄을 선별하였고 공무기지에 필

요한 수백t의 파철도 수집하였다. 오리분장, 버섯재배장, 남새온실, 양어장, 명당원건설에도 그들은 구슬땀을 아끼지 않았다.

세멘트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들이 얼마나 이악하게 일하는가 알수 있게 하는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날 이른아침 련합기업소 책임일군은 기업소구내로 손달구지를 끌고 들어서는 녀인들의 행렬을 보게 되였다. 호기심을 안고 오늘은 파철을 수집하는 날도 아닌데 무엇을 이렇게 가득 싣고 오는가고 묻는 책임일군에게 한 녀인이 달구지우에 씌운 보를 펼쳐보이며 말했다.

맨우에는 소성로보수에 떨쳐나선 소성직장 로동계급에게 안겨줄 후방물자, 그밑에는 련합기업소 문화후생시설주변에 심을 잔디, 또 그밑에는 철길로반관리에 쓸 호미를 비롯한 소공구들, 맨밑에는 공무기지에 가져다줄 파철이 있다고.

달구지마다에 세멘트생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소중한 마음이 가득 실려있는셈이였다.

뜨거움에 젖어 거듭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그 일군에게 그 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은 우리 남편들이 아닙니까. 세멘트만 꽝꽝 생산해주십시오. 세멘트증산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안해들이 무슨 일이나 다 말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녀인들인가.

상원의 이런 성실한 녀인들과 같은 아름다운 녀성들이 이 땅의 방방곡곡에서 만리마시대의 기상을 떨치는 눈부신 비약과 기적창조의 밑거름이 되여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들속에도 참다운 녀성애국농민들이 수없이 많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것을 자각하고 지금 농업근로자들은 한줌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애국의 후더운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그들가운데는 전국의 앞장에 선 다수확자들도 많은데 대다수가 녀성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만 놓고봐도 대홍단군 창평농장의 농장원 리경숙, 양덕군 동양협동농장의 농장원 최순옥, 성간군 동산협동농장의 농장원 고정옥, 영광군 상중협동농장의 농장원 손경옥을 비롯하여 수많은 녀성농장원들이 모든것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많은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모범적인 다수확자들로 높이 평가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주타격전방으로 중시되고있는 농업전선의 한 부분을 맡고있다는 높은 자각을 지닌 이들은 자신들의 담당포전은 조국이 맡겨준 하나하나의 영예로운 초소이며 담당포전에서의 수확고는 애국심의 높이라는 투철한 관점에서

농사일을 깐지게 하였다.

그처럼 불리한 조건에서도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며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였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을 활성화하여 정보당 수십t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였으며 부족되는 영농물자도 자체로 보장하였다. 알곡증산의 기본열쇠는 선진적인 과학농사에 달려있기에 이들은 누구보다 과학농사의 선구자들이 되였다.

땅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자식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들이 아낌없이 쏟아부은 정성은 그대로 알알이 충실한 이삭이 되여 포전마다 흐뭇한 풍년의 가을을 안아왔다. 정보당 10t이상의 소출을 거둔 다수확녀성농민들의 애국적소행을 본받아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속에서는 다수확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지펴지고있다.

사회주의협동전야에 애국의 땀을 바쳐 다수확을 거둔 이런 성실한 실농군들이 많기에 이 땅에서는 만풍년의 가을과 더불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는 반드시 해결될것이다.

과학기술강국과 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공화국의 녀성들은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하여 강국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날 미더운 녀성과학자들은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들가운데는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한가정

의 주부로서 누려야 할 행복도 다 바쳐가며 과학탐구의 길에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애국과학자로 시대가 떠받드는 녀성과학자들이 무수히 많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으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있는 녀성과학자들의 애국열의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여 6년 남짓한 사이에 수백명의 녀성박사가 배출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녀성박사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길에서 애국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고있는 유명무명의 성실한 녀성과학자들에 의해 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수많이 창조되고 그것은 곧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갈데 대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도 녀성교육자들이 한몫을 단단히 하고있다.

이렇듯 일터마다에서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녀성들이 있어 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는 최후의 승리를 예고하는 승전고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 우리 집을 빛내여가는 조선녀성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는 끝없는 헌신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가고있는데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밑바탕에는 조선녀성들의 숨은 노력과 헌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이 나라의 녀성들은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애국적인 가정으로 만들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녀성들이다. 녀성들의 강의하고 열정넘친 모습, 무한한 사랑과 헌신은 공화국이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웃으며 헤쳐올수 있게 한 원천이였고 사회주의사회에 언제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의 향기가 차넘치게 한 자양분이였다.

녀성들은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녀성들이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더없이 존중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시대의 축복속에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 미덕의 소유자들로 자랑떨치고있다.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 적극 내세우고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 나라의 역군들로 어엿하게 키우고 영예군인의 한생의 길동무가 되는것과 같은 고결한 풍모는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 대가정을 가꾸어가는 녀성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2012년 11월 력사적인 첫 어머니날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성기를 펼쳐가는 오늘의 시대에 조선녀성들의 애국적기상과 무궁무진

한 힘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대회이후 온 나라의 녀성들속에서는 시대앞에 지닌 자신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한가지라도 보탬을 주려는 애국열의가 뜨겁게 고조되였다.

그 열기와 더불어 지금 공화국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사회주의대가정의 화목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다 바쳐가는 훌륭한 녀성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그들이 꽃피우는 애국적소행들과 미풍들은 사랑과 정이 차넘치는 사회주의 우리 집의 참모습을 더욱 뚜렷이 하고있다.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계기로 한날한시에 7명의 모성영웅들이 태여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져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자식을 많이 낳아 그들을 조국의 기둥감들로 키우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진정을 바쳐가는 참된 영웅어머니들의 뒤를 이어 비록 부족한것이 많아도 휘황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며 아이를 많이 낳아 어엿이 키워 조국앞에 내세우는 애국적녀성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한가정의 행복에만 전념하던 가정주부로부터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진출한 당당한 근로자가 되여 삶의 참된 보람을 찾은 장한 녀성들과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온갖 고생도 달게 여기며 친어머니의 심

정으로 그들모두를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가고있는 정다운 어머니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2014년 12월 22일부 《로동신문》에는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19살 꽃나이시절에 뜻밖의 사고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고통을 겪던 대관군의 한 로동자처녀를 8년세월 정성다해 치료하여 끝끝내 자기의 모습을 찾아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미용외과 과장 림현단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는 기사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는것을 더없이 신성한 의무로, 량심으로 간직한 림현단이였기에 8년세월 평범한 로동자처녀를 위해 무려 100여차에 걸치는 크고작은 수술을 진행하면서 친혈육의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일수 있었다.

림현단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소행은 만사람을 감동시키였고 수많은 녀성들이 그의 깨끗한 량심과 애국심을 거울로 삼았다.

전국의 녀성들속에서 림현단과 같은 미풍의 주인공들이 태여나 신문과 방송에서 련이어 소개되였고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졌다.

지난 1월에 또다시 온 나라를 커다란 감동으로 끓어번지게 한 김춘화녀성의 애국의 정신세계는 사회주의 우리 집을 어떤 사람들이 떠받들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특류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여 30여년세월 불같은 헌신과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회안청년탄광 부원 김춘화녀성.

김춘화녀성이 특류영예군인의 길동무가 되여 수십년세월을 변함없이 자기를 바친것만도 찬양을 받을만 한 미거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의 어깨우에 두곱, 세곱의 짐을 걸머지였다.

언제나 자기 한가정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고결한 마음으로 김춘화녀성은 남편과 함께 고속도굴진소대의 명예대원이 되여 석탄생산에 심신을 바쳐왔고 출퇴근길에 배낭을 지고 다니며 수집한 파비닐과 낡은 천들로 안전모와 장갑을 마련하여 탄부들에게 안겨주었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년세월 원군길을 이어왔다.

그가 걸머진 짐이 자기 가정의 향락만을 위한것이였다면, 그의 헌신이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마 사람들의 심금을 그토록 울리지 못하였을것이다.

사회주의 우리 집의 한식솔이라면 생의 한초한초를 어떻게 불태워야 하는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그는 이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인간전형이다.

《뜨거운 정과 사랑으로 영예군인남편을 돌보며 두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꿋꿋이 세우고 탄부들과 군인들을 위한 헌신의 길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친 김춘화동지의 아름다운 인생은 저로 하여금 사랑과 정, 헌신으로 삶을 이어가도록 이끌

어주고있습니다.

저는 김춘화동지를 생활의 거울로 삼고 사랑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자욱만을 새겨가겠습니다.》

김춘화녀성이 받은 수많은 축하편지중의 한 편지에 씌여진 진정의 토로이다.

그의 소행이 알려진것을 계기로 지금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녀성이 새겨온 참된 삶을 진심으로 긍정하고 적극 따라배우려는 사회적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있다.

정녕 사회주의 우리 집은 김춘화와 같이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을 위해 자신을 묵묵히 바쳐가는 아름다운 녀성들이 있어 더욱 빛나는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세상을 둘러보면 수많은 나라 녀성들이 퇴폐적인 생활풍조에 물젖어 온갖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녀성들이 무권리와 학대속에 중세기적인 인신매매와 도덕적타락에로 내몰리우고있다.

사랑도 육체도 돈으로 팔고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이 눅거리상품으로, 현대판노예로 전락되고있을 때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나라의 꽃, 가정의 꽃이 되여 애국으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이 사랑이 없이는 한시도 못사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사회주의 우리 집을 떠받드는 길에 애국헌신의 짙은 향기를 풍겨가고있는 이 나라의 장한 딸들

이 있어 사회주의조선은 오늘도 그러하지만 래일도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것이다.

금메달에 어린 뜨거운 애국심

오늘 체육경기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판가리하는 포성없는 전쟁으로, 치렬한 대결마당으로 되고있다. 그래서 체육은 국력의 대결이며 체육경기에서의 우승은 민족의 힘과 정신력의 승리라고 말하는것이다.

만일 어떤 나라와 민족의 력사에 가장 힘있고 활력있는 시기를 말하라고 하면 그 하나로서 온 나라가 체육으로 흥한 시대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처럼 체육은 국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온 사회에 활기를 부어주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진보와 민족의 운명발전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강력한 변수로 된다.

체육을 사랑하는 민족, 체육을 중시하는 나라, 이는 문명하고 힘있는 나라, 용맹하고 활기에 넘쳐 전진하는 인민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공화국에서는 체육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서의 당당한 지위와 위력을 떨치겠다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전례없는 체육열풍을 일으키며 눈부신 비약과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만 한것은 최근년간 여러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가 련이어 창조되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것이다.

2012년에 있은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때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선의 금메달열풍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특기할 경기성과들이 다발적으로 창출되였다.

대표적인 실례로 2012년부터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가 진행되였던 2015년 3월까지 불과 4년동안에만도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근 260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 460여개를 포함한 총 1 05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높이 떨치였다.

지난해 2018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2018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제48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2018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고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날리였다.

특히 지난해 세계력기선수권대회와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4중세계선수권보유자, 3중세계선수권보유자들이 배출된것

은 공화국의 인민들모두에게 무한한 긍지를 안겨준 경사였다.

하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는 체육열풍과 더불어 공화국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체육신화를 창조하며 람홍색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 답을 이 나라 체육인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맥박치고 있는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조국애, 보답과 헌신의 세계에서 찾아보아야 할것이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를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강대해지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을 받들어 체육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최근년간 문명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체육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최대로 중시하고있다. 나라의 체육기술을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며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체육부문에 대한 다방면적인 투자와 노력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시되는것은 나라의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체육선수들이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패권을 쥐고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도록 하는것이다.

평화시기에 이역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사람들은 체육인들밖에 없으며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치는것은 체육인들의 성스러운 임무이다.

하기에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자신들을 나라의 체육발전의 기수, 돌격대로 내세워준 조국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이들의 심장마다에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쳐나갈 열화와 같은 애국충정의 불씨를 심어준 계기가 있다.

2012년 10월 **김일성**경기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제12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남자축구결승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의 휴식시간에 그이께서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선수들과 감독들을 부르시였다.

녀자유술, 력기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경기소식을 정깊이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경기들에 나가 우승하여 공화국기를 날리는 체육인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들이고 영웅들이며 멋쟁이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엄지손가락도 펴보이시며 선수들

을 대견히 바라보시였다.

국제경기에 나가 우승하고 시상대에 올라선 우리 선수들이 《애국가》가 울리고 공화국기가 게양될 때에는 다 국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체육인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실 때 장내는 해솟는 바다처럼 설레였다.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승하여 자본주의나라의 한복판에 람홍색공화국기가 련이어 게양될 때 눈물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자기들에게 참다운 애국자, 영웅들, 멋쟁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선수들과 감독들은 더없는 긍지와 신심에 넘쳐 앞으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해갈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이날과 더불어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애국의 후더운 땀을 다 바쳐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들을 련이어 창조해가며 세계무대에서 주체조선의 위용과 조선인민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해나섰다.

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로 들끓던 2015년 3월에 평양에서는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가 열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시였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하여야 한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는 체육인들모두를 불타는 애국열로 가슴끓게 하였다.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며 백절불굴의 의지로 승리하는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으로 그들은 만장약하였다.

미덥고 용맹한 조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인 체육인들이 일으키는 훈련열풍은 그대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조선의 체육신화의 련이은 창조로 타번지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렸던 2016년의 하반년도의 몇달어간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 기간에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림정심, 리세광선수들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축구, 태권도, 탁구 등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 50여개를 포함한 백수십여개의 메달을 쟁취하고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였다.

특히 장하고 미더운 새 세대 녀자축구선수들은 일본, 미국, 프랑스팀 등을 이기고 조선이 처음으로 한해에 2016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와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다 우승한 나라로 되게 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축구련맹인터네트홈페지는 《2016년은 조선축구의 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녀자축구팀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21개의 꼴을 넣어 자기의 공격식축구를 과시하였다고 격찬하였다.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가슴벅찬 화폭들이 련이어 펼쳐질 때마다 온 나라가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 환희와 기쁨으로 끓어번지였다.

금메달, 이는 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꿈이고 리상이다. 소원만으로는 쟁취할수 없는것이 금메달이고 리상만으로는 지닐수 없는것이 우승자의 영예이기도 하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공화국의 체육선수들은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우승의 금메달을 들어올릴수 있었는가.

영예의 시상식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우러르며 눈물짓는 체육인들의 심장마다에 고패치는것이 있다.

그것은 높은 경기성과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길에서 체육인의 본분을 다해나가려는 깨끗한 애국심이다.

하기에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화국의 체육인들이 하나와 같이 말하는 대답은 바로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떨치는 길에서 체육인의 더없는 긍지와 보람이 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쓰러질 권리도, 물러설 권리도 없다

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싸운다는것이다.

돈을 위해 달리는 선수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안고 달리는 선수의 경기결과는 같지 않다.

사상의 힘, 애국의 정신력이 어떤 기적을 낳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준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림정심선수.

림정심선수가 2012년에 진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와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그것도 서로 다른 몸무게급의 경기에서 련이어 금메달을 쟁취한 그를 두고 공화국의 인민들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력기애호가들도 정신력의 강자라고 경탄하여마지 않는다.

세상사람들은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녀자 75kg급경기에서 관람자들을 감동시키며 마지막까지 경기장에 나섰던 림정심선수를 잊지 않고있다. 그때 그는 경기도중에 뜻하지 않게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였다. 국제력기련맹의 의료진은 좌측고관절탈구라는 진단을 내리고 경기에 출전하지 말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림정심선수는 경기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수 없었다. 왜냐하면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을 온갖 품을 들여 어엿한 력기선수로 키워주고 로력영웅으로까지 내세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믿음과 사랑에 결코 어긋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때 그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만

나주신 자리에서 다음번에 진행되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다시한번 금메달을 쟁취하라고, 자신께서는 동무들을 믿는다고 하시며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며 초인간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경기장으로 한걸음 또 한걸음 내짚었다.

참을수 없는 육체적고통을 이겨내며 마지막까지 경기를 진행하고 승리의 시상대에 떳떳이 올라섬으로써 그는 조선의 체육인들이 지니고있는 정신세계가 어떤것인가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정신력의 강자인 그였기에 조국의 금메달은 땀젖은 손으로만 들어올릴수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2016년 8월 브라질에서 진행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 75kg급경기에 출전하여 폭발적인 힘과 완벽한 특기기술로 끌어올리기에서 다른 선수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단연 우승의 자리를 차지하는 동시에 올림픽2련승을 기록할수 있었다.

이런 놀라운 경기결과를 두고 외국기자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부상을 당했던 림정심선수가 맞는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기에 빨리 회복하고 기적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었는가, 올림픽2련승을 기록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고 련이어 질문하였다.

그에 대해 림정심선수는 2중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수상자의

영예를 지닐수 있도록 따뜻이 안아 품어주고 세심히 이끌어준 고마운 조국의 품에 대해 절절히 이야기하면서 금메달을 안고 하루빨리 조국으로 돌아가고싶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그렇다. 조국을 안고 달리는 선수처럼 강한 체육인은 없다.

국력의 상징인 금메달은 결코 쉽게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우승에로의 길은 한걸음한걸음을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인내력으로 넘어야 하고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끝까지 가야할 길이다.

어머니조국에 련이어 금메달을 안아오는것으로써 사회주의 조선의 체육인된 본분을 다한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리세광선수의 애국충정의 세계는 또 얼마나 만사람을 감동시키는것인가.

지난 시기 난도높은 특기동작인 《리세광동작》을 완성하여 세계기계체조계를 놀래운 리세광선수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데 이어 지난해에 있은 제48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고 3중세계선수권보유자로 되였다.

사실 그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자체육선수들가운데서 리세광선수는 33살로 가장 나이많은 선수였다. 흔히 남자기계체조선수들은 보통 27~28살이면 은퇴하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물론 20여년간의 선수생활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하게 빛내인 리세광선수에게 있어서 이제 선수생활을 그만둔다고 탓할 사람도 없었다. 주변에서도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 괜히 욕망을 앞세우다가 체면이 깎일수 있다, 세계선수권보유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퇴보한 모습이나 보여준다면 망신이 아닌가고 하면서 은퇴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더우기 지난해 3월과 8월에 있은 국제경기들에서 련이어 순위권에 들지 못하게 되자 그의 마음속 고충은 걷잡을수 없었다.

(정말 이젠 물러서야 하는가?)

착잡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모대기던 그때 그의 가슴속에는 7살때부터 자기를 애지중지 품을 들여 체육영웅으로 키워준 자애로운 품, 국제경기에서 우승하고 돌아올 때마다 영광의 최정상에 올려세워준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운 손길이 눈물겹도록 사무쳐왔다.

보통강반에 위치한 체육인살림집의 벽면에 가득찬 훈장들과 명예칭호증서들이며 뜻깊은 기념사진들마다에 깃든 조국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새겨보는 그의 심장에는 이런 신념의 맹세가 메아리쳤다.

능력이 다할 때까지 훈련 또 훈련!

심장이 뛰는 한 보답 또 보답!

그는 설사 은퇴한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훈련장

을 떠나지 않고 주체조선의 영웅체육인으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다할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결연히 훈련장에 나섰다.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온넋을 다 바쳐 심장이 다할 때까지 보답하려는 리세광선수의 높은 충정심과 애국심, 체육인으로서 선수생활의 마지막을 보다 떳떳하게 빛내고싶어하는 그의 깨끗한 량심은 그대로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낳고 진주보석보다 더 값비싼 땀방울들로 끝없이 뿌려졌다.

애국의 후더운 심장으로 훈련의 날과 날을 빛내인 리세광선수는 마침내 3중세계선수권보유자로 세계앞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다.

람홍색공화국기가 높이 오르던 그 시각 리세광선수의 심장속에서는 조국의 영예를 또다시 빛내인 참된 애국자의 더없는 긍지와 희열이 끓어번지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무서운 돌풍을 련이어 일으키고있는 세계적인 조마강자 리세광》, 《세계적인 조마강자 리세광선수는 줄곧 신비로운 존재로 간주되고있다.》 등 격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공화국기발을 향하여 우승의 시상대에서 리세광선수가 드린 승리의 경례는 바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 영용하게 싸운 참다운 애국자, 영웅적사나이가 어머니조국에 올리는 경의였고 사랑하는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떳떳한 인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리세광선수를 영웅조선의 체육신화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고 모든 체육인들이 그의 높은 정신세계와 도덕품성, 훈련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자신의 명예보다 조국의 존엄을 더 중히 여기고 자신을 깡그리 바쳐 조국의 명예를 빛내여가는 뜨겁고 진실한 애국충정을 지닌 리세광선수.

《조국이여, 나의 심장이 뛰는 한 승리의 금메달을 기다려달라!》

리세광선수의 가슴속에 고패치는 이런 뜨거운 맹세가 공화국의 체육인들모두의 심장에 그대로 새겨져 훈련장들마다에서는 애국의 뜨거운 열기가 차넘치고 국제경기들에서는 우리의 국기가 더 높이 휘날리고있다.

오늘 세계체육무대에서는 상업화가 거스를수 없는 추세로 되였다. 선수들이 경기복의 국기를 수시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례상사로 벌어지고있다. 고상한 체육정신이 흐려지고 순수 돈을 벌기 위해 경기장에 나서는 선수들의 실태와 돈에 팔리운 선수들이 자기 조국의 대표로 올림픽에도 참가할수 없게 되는 경우들을 보며 인간의 량심과 지성을 귀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있다.

계절조마냥 이 나라, 저 나라 리익의 가지우에 보금자리를 정하며 부평초마냥 떠다니는 불행한 선수들은 도저히 알

수 없고 영원히 지닐수 없는 강한 힘이 조선의 체육인들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사상의 힘, 애국의 정신력이다.

공화국의 체육선수들의 경기복마다에 새겨진 람홍색공화국기는 단순한 국적표식이 아니라 값높은 존엄과 운명의 상징, 자랑스러운 승리의 표대이다. 불패의 사회주의조국이 세상에 부럼없는 존엄높고 행복한 운명의 터전이고 무궁한 번영의 활무대이기에 그들은 창공에 공화국기를 무궁토록 나붓기게 할 일념으로 비상한 정력을 다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조국을 안고 달리고달려 어머니조국에 온넋과 온몸으로 승리의 금메달을 드리는 참된 애국자, 멋쟁이들이 있어 세계를 진감하는 주체조선의 체육신화가 줄기차게 창조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며 체육으로 흥하고 체육으로 강대해지며 비약해가는 주체조선의 모습이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쟁취하는 하나하나의 금메달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천금보다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승전의 위훈으로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장하고 미더운 체육인들의 모습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만난을 이겨내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체육인들을 참다운 애국자,

영웅, 멋쟁이들로 내세우시고 전례없는 체육열풍으로 강국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 헌신분투하는 미더운 체육인대오가 있어 공화국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빛나고있다.

사회주의 우리 집에 꽃펴나는 이야기

참다운 애국은 자기 집뜨락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 부모처자와 정다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다.

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화목한 대가정의 한지붕아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다정한 한식솔의 사랑과 정을 만발하게 가꾸어가는 속에 일터마다에서는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회주의 우리 집, 우리 국가에 대한 더없는 긍지와 자부가 높아지고있다.

사회주의 우리 집에서 꽃펴나는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형제로 다정하고 한식솔로 성실한 이 나라 사람들의 애국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엿볼수 있다.

아래에 최근에 널리 소개된 사회주의 우리 집에서 꽃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긴다.

요 람

황주군 읍에 사는 김정순녀성의 가정은 온 군이 알고 관심하는 가정이다. 그것은 이 가정에 평양산원에서 태여난 세쌍둥이가 살고있기때문이다.

과일군에 살던 김정순녀성의 가정이 황주군에 새 보금자리를 편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이다.

이사를 온 후 처음으로 맞는 설날 이른아침부터 세쌍둥이네 집은 문이 닫길새가 없었다.

우리 군에 세쌍둥이가 왔다며 찾아온 군의 책임일군들이며 애국의 가풍을 이을 세쌍둥이를 위해 품들여 마련한 생활용품들과 학용품들을 안고 온 이름모를 녀인들…

세쌍둥이가 앓을세라 병원의사선생님들이 찾아오고 몰라보게 자라는 그들을 위해 피복공장어머니들이 옷을 지어가지고 달려왔다.

얼마전 세쌍둥이 막내가 평양의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때에도 부모보다 먼저 달려가 진정을 다한 군일군들이였다.

세쌍둥이를 위해 온갖 성의를 다 기울이는 군안의 일군들을 비롯한 고마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김정순녀성은 이렇게 말하군 한다.

《나라의 고마운 혜택속에, 혈육과도 같은 사람들의 진정속에 자라난 우리 세쌍둥이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것입니다.》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것이 생활로, 풍조로 된 사회주의요람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한집안식솔

만경대구역에 있는 칠골공원에서 무도집이야기가 화제에 오른것은 지난해 10월이였다.

무도집이란 평양교원대학을 졸업하고 머나먼 서해의 무도에 섬분교 교원으로 자원해간 만경대구역 축전2동의 주현초교원의 집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처녀교원의 어머니인 윤정임녀성은 지난 시기 원군사업에 앞장에 섰는데 딸이 무도로 떠나간 후부터는 더 열성스레 원군을 했다. 그런데 그가 급병으로 그만 쓰러졌다는것이 아닌가.

그날 무도집과 이웃에 산다는 로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공원에 모여왔던 로인들에게 들려주며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현초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본적 없었지만 그토록 훌륭한 딸자식을 키운 녀성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로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이렇게 무도집과 인연을 맺은 칠골1동, 칠골2동, 축전1동과

축전2동의 로인들은 윤정임녀성의 병치료를 위해 물심량면의 지성을 바치였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생면부지의 한 녀인을 위해 구역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는 진정을 기울였다. 조국을 위한 헌신의 길을 남먼저 걸어가는 훌륭한 가정을 돕는것을 본분으로, 의무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은 실로 친혈육과도 같았다. 그런 진정속에 윤정임녀성은 마침내 병을 털고 일어나게 되였다.

윤정임녀성은 무도에 있는 딸에게 한자두자 이렇게 편지를 썼다.

《…자식을 키워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우는것은 어머니의 본분이건만 모두들 훌륭한 가정, 훌륭한 어머니라며 내세워주고 보살펴주니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니? 우리는 이런 사회, 이런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부끄럼없이 살아야 한다. …》

혈육의 뜨거운 진정

온 나라가 새해를 맞는 기쁨으로 설레던 설날 아침 혜산공공건물건설사업소 직장장 리영춘은 안해와 함께 혜산시에 살고있는 한 영예군인의 집을 찾았다.

그들을 맞이한 영예군인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리영춘의 아들을 처음 알게 된 몇해전의 일이 떠올랐다.

당시 대학생이였던 리영춘의 아들은 그날 사륜차를 타고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는 영예군인을 보게 되였다. 한달음에 달려간 그는 영예군인을 도와 병원까지 사륜차를 밀어주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여 대학생청년은 짬만 있으면 영예군인의 집을 찾아 진정을 기울이군 하였다.

그러던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게 되였을 때 영예군인과 안해는 서운함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덧 친형제처럼 가까와진 청년이였던것이다.

그런데 그가 초소로 떠난 후 그의 부모가 영예군인가정을 찾아오는것이 아닌가.

영예군인가정에 흐르는 정은 이렇게 끊길줄 몰랐다.

이들만이 아니다. 명절날과 기념일은 물론 평범한 날에도 시안의 많은 사람들이 영예군인을 찾아온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영예군인과 안해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리군 한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는 우리 사회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친누이의 심정으로

지금으로부터 6년전 북창군 읍으로 한 제대병사가 돌아왔다.

이름은 함원,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의 일로 부상을 당하고

영예군인이 된 그였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비록 영예군인이 되였지만 병사시절처럼 조국을 위해 변함없이 자신을 바쳐갈 결심이 굳게 자리잡고있었다. 그 결심을 지켜가던 어느날 그는 길가에서 우연히 한 녀인을 만나게 되였다. 자기가 탄 사륜차를 밀어주며 집은 어디이고 나이는 몇이며 이름은 무엇인가를 묻는 녀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였다.

그가 바로 북창군 읍에 살고있는 위경애녀성이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영예군인을 위해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기울였다.

때로는 먼길을 달려가 귀한 약재를 가져다주었고 영예군인이 새 가정을 이룰 때에는 생활용품들을 성의껏 갖추어주었다. 영예군인가정에 아기가 태여났을 때에도 그는 마치 자기 집안의 경사인듯 기뻐하며 지성을 다하였다.

영예군인이 건강회복을 위해 료양치료를 떠날 때에도 친누이의 심정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정성껏 갖추어준 위경애녀성이였다.

수년세월 한 영예군인이 조국을 위한 길에서 떳떳하게 생을 빛내일수 있도록 성심성의로 도와준 그의 소행에 감동되여 사람들이 칭찬할 때면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하군 한다.

《조국을 지켜 피흘린 영예군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어디 저뿐입니까. 영예군인의 몸으로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

하는 그의 모습에 비추어보면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진정 친누이의 심정으로 수년세월 한 영예군인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는 그 소행도 돋보이지만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진정은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이웃들의 진정

강서구역 태성리 29인민반에 사는 최성실녀성이 뜻하지 않게 한팔을 심하게 다친것은 지난해 12월 어느날이였다.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후방가족으로서 홀몸으로 살던 그는 걱정이 컸다. 하지만 공연한 걱정이였다. 인민반장 곽영순을 비롯하여 이웃들이 친형제와 같이 그를 도와나섰던것이다.

그는 이웃들의 남다른 관심속에 곧 구역인민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이렇게 시작된 혈육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입원생활을 하는 나날 정다운 이웃들이 때없이 병문안도 오고 집걱정을 할세라 집살림도 돌봐주며 기울인 진정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가 입원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웃들의 정은 끊길줄 몰랐다.

팔이 완치되자면 안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양식품도 안겨

주며 집안살림을 보살펴준것이 다름아닌 인민반장과 이웃들이였던것이다.

하기에 최성실녀성은 기쁨도 괴로움도 함께 나누며 친형제로 사는 이웃들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였다.

평범한 후방가족이 흘린 눈물, 바로 거기에는 모두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회주의 우리 집에 대한 사랑과 긍지가 깃들어있는것이 아니랴.

친딸이 되여

함흥시 사포구역종합식당 로동자 리승희녀성은 구역안의 전쟁로병들에게 혈육의 정과 사랑을 부어주고있는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이다.

그가 전쟁로병들을 위해 마음쓰는 나날에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해 9월 함흥시 사포구역 사포3동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김봉희로인이 급병으로 쓰러지게 되였다.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리승희녀성의 마음은 아파났다.

알게 된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친혈육의 정을 나누었던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로인을 일으켜세우기 위해 그는 눈물겨운 지성을 기울이였다. 그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친딸이면 이보다 더하랴 하는 생각에 눈굽을 적시였다.

리승희녀성을 비롯한 고마운 사람들에 의하여 로인은 얼마후 의식을 차렸고 몸상태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다. 올해 양력설날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자식들의 설인사도 받았다.

리승희녀성은 김봉희로인과 같은 동에서 살고있는 한봉덕전쟁로병도 친딸의 심정으로 보살펴주고있을뿐아니라 원군사업에서도 앞장서고있다.

리승희녀성과 같이 전쟁로병들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공화국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도와주는것을 도덕의리로, 공민의 의무로 간직하고있는 인민, 덕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사회의 풍모가 여기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는것이다.

《아들며느리가 또 왔어요!》

화창한 4월의 봄 명절날 아침 평양양로원의 마당가에 기쁨넘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최명윤어머니, 아들며느리가 또 왔어요!》

얼마후 최명윤로인은 신발도 채 신지 못한채 양로원뜨락에 들어선 리과대학 부원 량재일과 그의 안해에게로 달려가다싶이 했다.

그들은 남편과 자식을 잃고 외로이 지내는 로인을 위해

10여년세월 그의 친자식이 되여 온갖 지성을 다해오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이였다. 그들의 뜨거운 정은 로인이 양로원에 들어온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고마운 손길아래 행복의 보금자리로 솟아난 양로원생활에 무슨 불편이 있으랴만 맡은 일로 바쁜 속에서도 때없이 찾아와 친혈육의 정을 다하니 어찌 로인의 가슴이 뜨겁게 젖어들지 않을수 있으랴.

그날 최명윤로인은 모여온 사람들에게 자랑에 넘쳐 말하였다.

《고마운 우리 세상에서 인생말년에 자식복까지 누리니 나처럼 행복한 로인이 또 어디 있겠소.》

어린 생명을 위하여

지난해 2월 어느날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2과로는 중태에 빠진 한 아기가 실려왔다. 그날 과의 의료일군들은 아기의 부모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료하면 됩니다.》라고 힘을 주고는 곧 치료에 진입하였다.

의료일군들의 정성으로 어린 환자의 병세는 차츰 호전되여 갔다.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기쁨은 비길데 없이 컸다. 하지만 그들은 의료일군들이 아기를 완치시키기 위해 어떻게 정성을 다 기울이고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알수 없었다.

어린 생명을 위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가는 그들은 친부모, 한식솔의 모습 그대로였다. 환자를 위해 자기의 피를 서슴없이 바친 리순영의사를 비롯하여 환자곁에서 며칠밤을 꼬박 지새운 의료일군들…

그들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아기는 기적적으로 완치되였다.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의료일군들,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임을 아기의 부모는 잘 알고있었다.

하기에 그들은 보답의 마음을 안고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는 길에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쳐갈것을 굳게 결의다졌다.

뜨거운 정과 사랑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이것은 은파군에서 사는 채명희녀성이 터친 마음속 진정이다.

지난해 11월 그는 황해북도인민병원에서 결막이식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후 호실에 와서 침대에 누우니 새록새록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안과 책임의사 김명월이였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채명희녀성은 이미전부터 앓던 눈병이 도져 거의 실명될 상태에 있었다.

반드시 결막을 이식받아야 할텐데 누구의 결막을…

이때 선뜻 나선 사람이 바로 오래동안 그의 치료를 맡아하던 김명월책임의사였다. 환자들을 위해 피와 살을 바치는 의료일군들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자기가 직접 담당의사의 결막을 이식받고보니 채명희녀성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붕대를 푸는 날 《수술이 잘되였어요.》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김명월의사, 환자는 오래도록 그의 손을 꼭 잡고 놓을줄 몰랐다.

이런 참된 의료일군들, 인간생명의 기사들은 이 땅 어디에나 있는것이다.

따뜻한 축복속에

지난 2월초 평성시의 어느 한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뜻깊은 결혼식이 진행되였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옥동자를 낳길 바랍니다.》

결혼상을 마주한 신랑신부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사연이 있었다.

어느날 평안남도정보통신국의 31분구장은 분구의 종업원인

하성혁이 인차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생각이 깊었다. 량부모가 없는 그의 결혼식준비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책감에서였다.

《우리 분구에서 성혁동무에게 결혼상을 잘 차려줍시다.》

그의 이 결심을 지지하여 온 분구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이 떨쳐나섰다. 새 가정이 살게 될 집으로 달려와 온돌과 부뚜막을 수리하고 도배지를 바르는 종업원들,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와 그릇들을 마련한 종업원들…

하성혁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였다.

외롭게만 여겨지던 자기 집이 동지들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되였고 이처럼 결혼상까지 받아안게 되였던 것이다.

결혼식날 하성혁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는 부모가 없지만 천만자식모두를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있고 친혈육의 사랑을 주고 정을 기울이는 동지들이 있어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광명을 찾아준 정성

지난 5월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정문을 나서는 모란봉구역 비파2동에 사는 리운홍녀성의 눈가에 봄날의 해빛이 따스이 비쳐들었다. 얼마나 되찾고싶었던 광명인가.

얼마나 보고싶었던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인가. 그는 평범한 녀인에 불과한 자기를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아글타글 애쓴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매일과 같이 찾아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린 서성구역 장경종합진료소 의사들과 여러차례의 어려운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환자의 몸상태를 추켜세우기 위해 그토록 마음을 쓴 류경안과종합병원 최균진과장을 비롯한 의료일군들…

그들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에 떠받들려 리운홍녀성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때부터 여러해만에 다시금 밝은 눈으로 세상을 마음껏 보며 활보할수 있게 되였다.

다시 찾은 광명으로 설레이는 그의 마음속에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정과 함께 훌륭한 인간들을 키워낸 조국을 위해 보답해갈 결심이 한가득 차올랐다.

4. 영원히 그대를 사랑하리라

사회주의의 밝은 앞날을 락관하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번영의 대진군길우에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승리의 기치로 나붓기고있다.

이 땅 그 어디서나 절세의 애국자를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함께 우리 제도, 우리 정권, 우리 생활이 제일이라는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창공에 나붓기는 람홍색공화국기에는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갈 천만인민의 불같은 애국의 열정이 뜨겁게 어려있어 더욱 눈부시고 아름답게 안겨온다.

누구나 령도자를 진심으로 우러러받들고 조국에 대한 깨끗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끓이며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로 신심드높다.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우리 집, 우리 조국을 인민은 영원토록 사랑하며 빛내여나갈것이다.

우리에겐 위대한 어버이가 계신다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려정에서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인민의 나라인 우리 공화국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세계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있다.

《령토의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작은 나라인 조선이 세계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은 보통상식으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조선은 확고히 세계정치의 중심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난관이 중첩되는 조건에서도 조선이 계속 승승장구하며 세계의 자주력량을 선도해나가고있다는것은 리해하기 힘든 신비가 아닐수 없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경이적인 사변들과 성과들을 통해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은 높이 과시되고있다.

세계를 커다란 충격으로 끓어번지게 한 조중, 조로, 조미사이에 진행된 수뇌분들의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을 통해 공화국이야말로 세계정치중심에 우뚝 올라선 자주의 강국임을 극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계기로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일체로 뭉친 불패의 힘은 더욱 억척으로 다져지게 되였다.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져 어딜 가나 새로운 기적과 혁신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일터마다 자력갱생으로 들끓고 거리와 마을들은 약동하며 누구나 열렬한 애국충정의 열기로 가슴끓이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가혹한 제재봉쇄속에서 공화국의 전진과 발전이 날로 배가되는 이 경이적인 사변은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장구한 인류사는 당대에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문명시대를 선도하고 국토를 개변하여 자기 국가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한 위인들을 적지 않게 전하고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같이 최악의 역경속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의 운명과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무궁한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은 정치가는 고금동서에 전무후무하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사상과 령도에서 제일이시고 담력과 배짱에서 제일이시며 덕망과 인품에서도

제일이신 절세의 위인을 사회주의 우리 집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으로 하여 광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에 넘쳐있다.

예로부터 훌륭한 아버지를 가장으로 둔 집안에는 행복이 차넘치고 번성한다고 하였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담보하는 국력의 강약은 령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탁월한 령도자만이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투철한 신념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의 강국건설사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자주정치의 거장,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력을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제일가는 애국업적이다.

국가의 존엄과 지위는 주관이나 추상이 아니라 세상사람들이 해당 나라를 보고 대하는 관점이며 태도이다. 세계속에 나라와 민족이 있다. 그 어떤 렬강도 건드릴수 없고 무시할수 없으며 만민이 찬탄하고 따라배우는 국가야말로 최고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는 나라이다.

민족의 운명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강국의 지위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지위에 오른다는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것과도 같은 민족사적대업인것이다. 이런 거창한 위업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과 몇년동안에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국가를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나라, 자위의 강국으로 만드시였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전란과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 동란의 참화속에서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무고한 인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땀흘려 마련한 사회적 재부가 순간에 재더미가 되여버리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을 막는것이야말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는데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일이며 최고의 존엄사수전, 인민수호전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전쟁은 외교나 구걸이 아니라 강력한 물리적힘으로써만 막을수 있다. 힘이 없으면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할수 없고 언제 가도 침략세력의 공갈과 전쟁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여 내 나라의 하늘을 영원히 푸르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의지, 천재적지략에 의하여 최

강의 국가방위력을 갖추기 위한 자위적로선이 제시되고 공화국은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기적들을 불과 몇해안에 이룩하며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치렬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쾌승을 거두었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 운명과 지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는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여왔으며 지어 다른 나라들사이의 세력권다툼도 이 땅에서 벌어졌다.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도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전쟁의 불구름이 떠돌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공화국은 자기 인민에게 백년, 천년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보장해줄수 있는 가장 강위력한 국가로 위용떨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공적중의 최대공적이다.

사상과 리념, 지역과 제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세계언론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매혹되여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가장 놀라운 지각변화를 일으킨 전략가》, 《몇세기에 한번이나 출현할수 있는 위대하고 지혜롭고 강력하고 멋있는 지도자》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성의 관념으로는 전혀 가늠할수도, 리해할수도 없는 여기에 위대한 **김정은**정치의 특출한 위력이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전렬에 확고히 올려세우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국가의 존엄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렬강들의 비위를 맞추고 폭제와 전횡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가 그 무슨 존엄을 말할수 있겠는가. 그 어떤 대국들도 무시하지 못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나라,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주변형세와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는 나라가 존엄높고 강대한 국가이다.

오늘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지난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높이에 올라섰다. 공화국과 대국들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있으며 렬강중심의 낡은 국제질서를 뒤흔들며 새로운 국제질서, 자주의 세계질서가 확립되고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어도 공화국처럼 대국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의 원칙과 리익을 당당히 고수하는 나라, 세계정치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세계정치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나아가는 공화국은 자주와 정의,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 귀중한 산모범으로 되고있다. 오늘 수많은 나라 정치가들이 조선의 현실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있다. 존엄높은 공화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찾고있다. 바로 이것이 작고도 큰

나라인 주체조선의 존엄이며 위상인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자력으로 부흥하고 비약하는 국가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이룩하신 커다란 업적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진실로 존엄있고 국력이 강하며 전도양양한 국가가 되자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국가가 아니라 자립형의 국가가 되여야 한다. 더우기 누구도 조선이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는것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공화국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참으로 엄혹하였으며 《진로변경》의 대가로 《번영》을 선사하겠다는 패권주의자들의 유혹 또한 매우 집요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 힘에 의거하고 자기 힘을 부단히 키워나갈 때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고 더욱 발전하고 강력해질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

자력갱생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자기식, 자기 힘으로 건국이래 가장 큰 산을 넘는 대승리를 이룩하고 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었으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자립화하기 위한 투쟁

에서도 중요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최근년간 해마다 기념비적창조물들, 진정한 인민의 소유로 되는 수많은 대건설사업들이 더 통이 크게, 더 놀라운 속도로 전개되고있는것은 공화국의 저력과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날로 높아지고있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전략적지위는 절세위인을 모신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천백배로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담대한 배짱과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으시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령도자가 어떤 담력과 배짱으로 국가와 인민을 이끄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존엄을 수호하고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하는데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조선이 새로운 주체100년대 진군을 시작할 때 조선문제에 조예가 있다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온갖 예측을 다 내돌렸다. 세인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강국건설의 대통로를 과감히 열어나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강한 공격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새시대의 강국건설의 대진군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시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나라의 구체

적조건과 현실, 인민들의 기질과 투쟁기풍에 대한 명철한 판단과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공격전을 최후승리의 최선의 방도로 내세우시였다.

순간의 침체나 답보도 허용하지 않고 공격, 공격 또 공격으로 시대의 전진을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는 기적의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이다.

나라의 존엄을 건드리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견결한 자주적립장, 용납할수 없는 요구에는 초강경조치로 대답하는 담대한 배짱, 일단 시작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실천하는 완강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이한 령도풍모이다.

수시로 급변하는 정세흐름을 따라가면서 대응하는것이 아니라 열수, 백수를 내다보며 주동적인 전략전술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예술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인민의 풍모, 국풍은 령도자의 풍모를 닮게 된다. 공격형의 령도자가 이끄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도 공격정신의 강자로 위용떨치고 군사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사업도 공격적으로 활력있게 추진되고있다.

지난 기간 공화국에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속적으로 일어날수 있은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단

결되여 완강한 공격정신을 총폭발시켜왔기때문이다.

인민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엄중한 난관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결함들도 털어놓고 알려주며 대중의 투쟁열, 애국열을 고조시키시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특징이다. 국방과학자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최단기간내에 군력을 높이기 위한 길도 모색하시고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올리는 소박한 편지에서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얻으시며 인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스스로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자신께 돌격명령을 내리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결사의 투쟁으로 그이께서 주신 과업을 최상의 높이에서 무조건 완벽하게 수행하는것을 습벽으로 한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단숨에,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만리마속도, 백두산영웅청년신화, 강원도정신…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태여난 수많은 시대어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쟁기풍은 지금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역마다에 차넘쳐 신화적인 사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창조와 혁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론이고 확고한 원칙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견본모방이 아니라 개발창조의 원칙을 구현하며 모든 분야에서 경직을 풀고 대담하게 착상하고 세계적인것을 내놓을데 대하여 언제나 강조하고계신다.

그이의 세련된 령도밑에 이 땅에서는 혁신과 창조의 거대한 진폭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약동하는 젊음의 기백으로 비약해나가는 창조방식, 투쟁본때가 차넘치게 되였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는 구호밑에 순간순간을 새로운 시대속도창조, 첨단돌파전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속에서 시대의 전진을 방해하는 패배주의, 수입병, 안일해이와 같은 사상적병집들이 짓부셔지고 자기 단위를 전국의 본보기,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이 호평하는 명제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상품으로 되도록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고 생산공정을 하나 현대화하여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해나가는것이 오늘의 시대의 일본새이다.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하는 전인민적인 창조투쟁속에 우리 조국은 하루가 다르게 젊어지고있으며 세계에 없는 사회주의 재부들이 늘어나고있다.

세계를 따라앞서나갈 담대한 배짱과 야심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며 강국의 꿈과 리상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가면서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페부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정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희생적헌신으로 사회주의 우리 집, 우리 공화국을 빛내여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강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과시되는 오늘의 승리가 그처럼 위대한것은 변혁의 높이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쳐진 피와 땀이 더없이 고귀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2월의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사랑하는 인민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난관을 박차며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백배로 다져오시였다.

그 나날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지새우신 밤, 쏟아부으신 심혈과 로고는 수백수천권의 책으로도 다 전할수 없다.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

은 공식 보도된것만 해도 천백수십건에 달한다는 이 한가지 사실을 놓고서도 그이의 헌신의 세계가 얼마나 웅심깊은것인지 잘 알수 있다.

이 땅의 날과 달들은 눈비내리는 험한 길, 새벽길, 밤길도 웃으며 헤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으로 밝았고 그 소식으로 이어졌다. 그 길에는 참으로 위험천만했던 초긴장의 순간도 있었고 사나운 파도를 헤치시던 바다길도 있었으며 몸소 시운전의 비행운을 그리신 하늘길도 있었다. 그 불같은 헌신의 장정에서 폭열강행군, 심야강행군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태여나고 가지가지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꽃펴나게 되였다.

어찌 그뿐이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료해하시기 위해 시운전용삭도를 타시고 령정점에까지 오르신 감동깊은 사실도 있고 깊은 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첫 손님이 되시여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운행길에 계신 가슴뜨거운 사연도 있다.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는 문제로부터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문제, 나라의 대외적권위와 관련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원수님께서 소홀히 하실 문제란 하나도 없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발걸음에 조국의 전진이 달려있다는 숭

고한 사명감, 자신이 고생하면 그만큼 인민의 행복이 늘어난다는 고결한 인생관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고계신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사변적성과들을 대할 때마다 거기에 바쳐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남모르는 고생, 초인간적인 헌신이 가슴에 사무쳐와 눈굽을 적시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명실공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시대이고 공화국은 원수님의 애국의지로 전진발전하는 국가이며 천만인민은 원수님의 열과 정속에 사회주의 우리 집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복받은 인민이다.

정녕 지나온 투쟁을 통해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면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당당하게 강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으며 절세의 위인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으로 존엄떨칠수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안았다.

지금 천만인민모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 우리 집에서 누리는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금은보화를 준대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것이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지키고 빛내여나갈 열의에 불타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국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대진군의 진두에서 불철주야의 애국헌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다.

언제인가 자나깨나 심장에 고패치는 숭고한 열망을 터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

인간에게 있어서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꽃피워주며 미래까지 담보해주는 은인처럼 고마운분은 없다. 력사의 그 어느 위인도 지닌적 없는 이렇듯 고결하고도 숭고한 뜻을 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인민들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다.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계만방에 빛내이실 의지를 안으시고 오늘도 헌신과 로고의 먼길을 걷고걸으시는분, 민족만대에 불멸할 업적을 쌓으셨건만 자신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그저 인민의 믿음이면 된다고 하시며 천만가지 행복과 영광을 고스란히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려는 이 나라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그렇다. 나라와 민족의 최고의 국력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있다.

위대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 절세의 애국자를 사회주의 우

리 집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선은 존엄과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며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쳐 질주할것이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국가부흥의 새 력사를 펼쳐가고있는 이 땅우에 한편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우리의 람홍색기발 창공높이 날릴제
바라보며 높뛰는 심장 애국의 피로 끓어라
거세찬 펄럭임에 조국의 숨결 어리고
목숨처럼 소중한 기폭에 인민의 운명 실었네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붓겨다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

격동의 이 시대에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온 나라 인민을 부르는 노래 《우리의 국기》.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뜨거운 애국의 분출마냥 장엄한 대합창이 되여 울려나온다. 창조와 혁신의 불꽃날리는 공장마

다에서도, 애국의 구슬땀 뿌려지는 드넓은 농장벌들마다에서도, 수천척 지하막장과 검푸른 날바다의 배전우에서도, 해빛 밝은 학교의 창가마다에서도…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심오한 진리가 세차게 맥박치는 이 노래를 인민들 누구나 애국의 기치로 뜨겁게 새겨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한 대진군의 발걸음을 더욱 힘있게 내짚고있다.

한편의 노래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집,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로 전체 인민의 심장이 억세게 고동치기에 이 땅에는 최후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앞당겨질것이라는 고귀한 철리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지만 국가다운 진면모에 있어서나 그 양양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위대한 나라가 그 어디에 있는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인민의 만복이 찬란히 꽃피는 사회주의 우리 집, 내 조국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강대하고 위대한 나라이다.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서 세차게 분출하는 이 숭고한

사상감정이 바로 우리 국가제일주의,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제일주의인것이다.

하기에 천만인민은 한목소리로 영광찬 공화국의 력사를 길이 전하며 눈부신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는 신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한 힘찬 진군에 박차를 더해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력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최근년간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오는 과정에 천만인민모두가 재삼 확신하게 된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 애국적인민의 억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에로 향한 전진로상은 결코 순탄치 않다. 지금보다 더하게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닥칠수도 있다.

하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배심든든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에게는 탁월한 사상의 향도가 있고 일심단결이라는 최강의 힘이 있으며 무적의 군력도 있기때문이다.

더우기는 공화국이 가는 길이 진정한 평화와 번영에로 향한 정의의 길이며 강국건설위업이야말로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충만된 정의의 위업이라는것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간직한 천만인민의 열화와 같은 애국심을 최강의 무기로 갖고있기때문이다.

사랑과 정의는 장구한 인류사가 증명한 영구불멸의 진리이고 승리이다. 부정의의 폭제가 아무리 사납고 모질다 하여도, 아무리 엄혹한 시련이 앞을 막아나선다고 하여도 사랑과 정의는 그보다 더 강하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고 굳게 믿는것이며 보다 원대한 꿈을 래일에 얹으며 조국을 위한 길에서 변함없이 애국의 후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눈부신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

이 노래구절에 전체 인민이 발휘해야 할 애국의 숭고한 목표와 높은 요구가 빛발치고있다.

그것은 존엄높은 강국의 주인다운 리상과 포부, 투쟁기풍과 창조본때를 지니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한명한명의 인재를 키워도, 하나의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고 하나의 사업을 전개해도 세계가 우러러보는 최고의 높이에서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의 엄숙한 부름과도 같다.

인민의 애국심이 불타는 곳에 조국의 승리가 있는 법이다.

하기에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가 누구이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사회주의 우리 집, 위대한 우리 국가의 일원임을 순간도 잊지 않고 조국이 맡겨준 자기 일터, 자기 직업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갈 애국의 열망으로 가슴끓이고있다.

그 열망의 뜨거운 분출과 더불어 람홍색국기의 찬란한 빛은 온 누리를 아름답게 물들일것이며 위대한 조국의 승리와 함께 인민은 모든 영광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심장의 이 웨침에는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력사를 써나가려는 진할줄 모르는 이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지가 맥박치고있다.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어머니조국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

는 바로 여기에 애국자의 참다운 모습이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조국은 애국자들의 심장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한그루의 거목과 같다.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고 시련의 찬서리도 꿋꿋이 이겨내는 조국의 장한 모습은 바로 그 푸르름, 그 억세임을 더해주는 참된 인간들의 애국적의지와 열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 우리 집, 우리 조국은 애국자가 많아 제일 강하고 위대한 나라이다.

위대한 어머니조국을 위해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누구나 이 물음앞에 자신들을 세우고있다.

매 개인의 삶과 인생이 어머니조국에 눈부신 빛발을 더해주는 한줄기 빛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조국의 푸르름을 더해주는 하나의 억센 밑뿌리가 되게 하려는것이 인민들의 드높은 자각과 의지이다.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묵묵히 자기를 바쳐가는 미더운 탄부들이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쌀로써 조국을 받드는 유명무명의 다수확농민들,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뼈를 깎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며 과학의 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자랑스러운 과학자들, 인생의 뿌리를 외진 섬초소며 산골마을에 내리고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성실한 교육자들…

조국의 어디 가나 보게 되는 이런 참다운 인간들이야말로 사회주의 큰집의 기둥을 받들고 선 보이지 않는 성돌들이다.

진함없는 애국의 열정으로 지켜야 하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집이다.

그래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어려워도 행복해도 누구이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항상 마음을 다잡고있다.

사회주의 우리 집을 무궁토록 빛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터치는 애국자들의 진정을 들어보라.

《우리 영웅적로동계급은 부강조국건설에서 맏아들의 본분을 다한 전세대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자력갱생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애국의 열정과 슬기,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과 세계적인 과학기술적재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세계를 디디고 올라선 강국의 래일을 반드시 안아오겠습니다.》

《농업전선에서 통장훈을 부르기만 하면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으며 최후승리의 날은 더욱 앞당겨질것입니다.

우리가 가꾸는 땅처럼 진실하게 우리 원수님을 받들어 사회주의 우리 집에 쌀이 넘쳐나게 하는 참다운 애국농민이 되겠습니다.》

《우리 500만 청년전위들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위대한 당과 사회주의조국만을 아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하고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나가는 선봉대, 돌격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인민들은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자력갱생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우리 도를 자급자족을 제일먼저 실현한 선구자 도, 가장 문명하고 제일 잘사는 부유한 도로 천지개벽시킬것이다.》

이렇듯 불타는 애국의 열과 정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후손만대 길이 빛내가려는 지향을 담아 노래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진다.

우리가 지켜온 기발 대를 이어 지켜지리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우리 국기 불멸하리
…

천만이 모두가 이런 사랑과 신념으로 한마음, 한기세로 일떠나섰기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두려울것이 없고 조선은 무서운 힘과 속도로 행복의 무릉도원을 단숨에 세우게 될것이다.

승리와 미래는 강위력한 힘을 지닌 사회주의국가와 인민에

게 있다.

자본주의의 파렴치한 나이가 불행하게도 어언 수백년을 헤아리고있지만 그의 생존사와 병력서를 산출해보면 멸망이라는 절대값과 함께 력사의 무덤에로 가는 마지막발자국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가늠할수 있다.

국제사회의 저명한 분석가들이 향후 발전잠재력이 가장 크고 괄목할만 한 변혁을 일으킬 나라는 조선이라고 예언하고있는바와 같이 공화국인민들의 자신심과 힘은 오늘을 넘어져 찬란한 승리의 대안에 뻗쳐있다.

그렇다.

조선인민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심장에 새겨안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과감히 전진해나갈것이며 마침내는 인민의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력사앞에, 세계앞에 반드시, 반드시 증명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사회주의 우리 집, 우리 국가 영원무궁 만만세!

사회주의 우리 집

필 자	김 정 남
장 정	김 영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8(2019)년 10월 26일
발 행	주체108(2019)년 10월 30일

ㄱ－1456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11－1